



[혐오민국 길을 묻다] 난민 혐오 우려 수준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을 03



Economy

|             |                 |           |                      |
|-------------|-----------------|-----------|----------------------|
| 코스피         | 2265.46 (-7.30) | 코스닥       | 799.10 (+3.39)       |
| 금리 (국고채 3년) | 2.13 (-0.01)    | 환율 (원-달러) | 1114.50 (-4.20) (4일) |

# 김앤장 “삼바 콜옵션 주식 누락, 회계위반 아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 증선위, 어제 4번째 심의 회사측 주장에 힘 실릴 듯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부터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식 등에 바이오젠 콜옵션 계약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심의

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

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갑자기 변경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한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으면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식에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적시하지 않은 것을 회계처리 위반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이 “콜옵션 가능성을 주식에 명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12년, 2013년 주식 누락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아울러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식 누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해당 자문을 받은 것은 맞다”며 “이번 증선위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가 담긴 수정 조치안을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치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증선위에서 수정 조치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까지 증선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기업 옥죄기에 투자·소비 실종... 3% 장담 못해

(올 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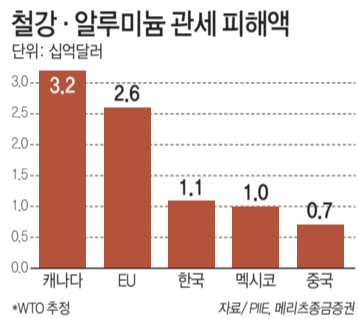
##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 (1) 韓경제 3% 성장?

600기업, BSI 7월 전망치 17개월 만에 최저치 경신

수출·내수 모두 뒷걸음질 글로벌시장, 韓전망 낮춰

부동산 '강남 불패', 주택 보유세 인상 정책이 예고됐지만 '푹푹한 한재' 못 맞서는 수요 때문에 일부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것이 '공급 부족'. 문재인 정부도 공급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수급의 균형을 맞춰 집값



을 잡겠다는 것. 보유세 인상카드도 나왔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이 따로가면서 이 같은 정책이 물음표가 붙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의 생각도 정부와 따로 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3% 성장을 장담한다. 시장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게 마련이다. 현실은 아직 한겨울이다. 지난 5월 설비투자는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가하다가 3월 7.

6%나 급감한 데 이어 4월에도 2.7% 줄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883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75조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3% 성장을 장담하는 한국경제의 불편한 진실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쓸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아우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한다. 또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을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한국경제 경고등...언제쯤 파란 불 될까

경기전망에 대한 경고등이 커

졌다.

한국경제연구원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전망치가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부정적 경기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추고 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는 4.70%이다. 연초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0.50%포인트), 브라질(-0.20%포인트)과 함께 뒷걸음 한 것이다. 미국은 5.10%로 연초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도 연초 대비 0.20%포인트 상승한 3.70%였다. 일본의 명목 성장률도 2.20%를 기록 중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암초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모양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됐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러시아까지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다.

내수부진도 걱정이다. 쓸 돈이 없어서다.

2018년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하는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했

다. 2017년 4분기 0.5%포인트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친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게 현실이다.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투자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통상임금 인장·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부양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장기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고용 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대출금리 오류... 성난 여론에 화들짝 여·야도 '금리조작' 처벌법 발의

당초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던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졌다. 성난 여론에 금융당국이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대출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법 제52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신설해 은행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 임대전환·부부 공동명의·증여 등 종부세 인상, 부동산 개편 가속화

### 갭투자 줄여 안정세 기대 다주택자는 절세방법 고심

“증여해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

보유세 개편안 권고 이후 부동산 시장 투자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특히 절세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서울 강남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증여, 임대사업자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향후 개편안 권고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

시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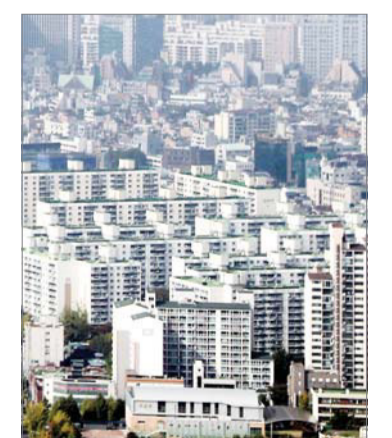
다주택자의 경우 집 처분으로 세 부담을 피하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 62%까지 양도세 증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증여, 부부 공동 명의 및 임대사업자 전환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가수요나 갭투자가 줄어들고 주택가격도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 분석이 우세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4일 “중

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서울 강남 등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 증여, 임대사업자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절세 방법은 임대사업자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주택가격이 치솟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장기간 처분할 의사가 없을 경우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취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득부터 매각 때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른 절세 방안으로 세무사들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 증여 등을 권고한다.

증여도 한 방법이다. 강남 등 부동산을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지역별 맞춤, 공급시기 조절... 선제대책으로 미분양 근절

## 미분양 6만가구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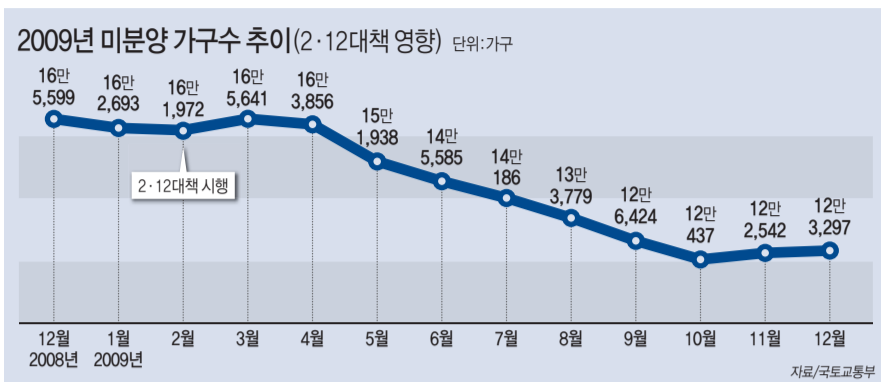
<下> 대응 방법은

과거 취득세·양도세 감면 처방  
정부 의존도 높아 상황 반복 돼  
국지적 정책 보다 적체지역 위한  
신규분양 조절 등 선제대책 필요

아파트 분양 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렸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불꺼진 아파트(미분양)'가 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분양 가구가 증가하면 세금감면 등의 처방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미분양 가구 감소에 대한 정부 의존도가 높아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 근본적·선제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 미분양, 과거엔 어땠나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 미분양 가구는 5만9836호로 3년 만에 112.6%(3만1694호) 늘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9·10 대책 시행, 2015년 기준금리 인하(1.25%)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그러다 최근 주택 규제, 금리인상, 공급 과잉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미분양 가구는 주택 경기 침체의 경고등 역할을



### <정부의 미분양가구 관련 대책(2009년, 2012년)>

| 시기    | 이름     | 내용   | 효과                                       | 결과                     |
|-------|--------|--|--|------------------------|
| 2009년 | 2·12대책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99㎡ 미분양주택(2억 4000만원) 취득시 총 세액 648만→276만원 | 1년만에 16만5599호→12만3297호 |
| 2012년 | 9·10대책 | 취득세 50% 감면 전국 확대<br>미분양 주택 구매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 5억원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1000만→500만원              | 1년만에 7만1552호→6만110호    |

을 한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가구 증가 폭이 커질 때마다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2009년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2·12대책)'이다. 당시 미분양 주택이 17만 가구에 육박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줬다. 전용면적 99㎡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총 세액

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 수요심리를 자극한 결과 미분양 주택은 2008년 12월 말 16만5599호에서 1년 만에 12만3297호로 25.5%(4만2302호) 감소했다.

2012년에도 9·10 대책을 내놨다.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의 활성화 대책이다. 당시 미분양가구 규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월별 증가폭이 컸다. 같은 해 4월 미분양 가구는 전국 6만1385가구

에서 7월말 6만7060가구로 3개월여 만에 6000여가구 늘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 주택 구매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를 내놨다. 2011년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2012년 연말까지 다시 적용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취득가액의 4%였던 취득세를 2%로 낮췄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2011년 9개월 동안 취득세 50% 감면했을 때 전국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이후 9·10 대책 시행에 따라 미분양 주택은 2012년 9월 말 7만1552가구에서 2013년 9월 말 6만110가구로 1년 만에 16%(1만1442가구) 줄었다.

### ◆ "지역별 연구, 공급시기 조절 등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미분양가구 증가세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역별 연구, 공급시기 조절 등 근본적·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미운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지역별 연구·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이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3년간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며 "다만 미

분양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선 3~6개월 이상 집이 안 팔리면 미분양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분양 분류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정확한 정의도 없다"며 "구분을 정확히 하고 지역별 연구·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국지적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미분양 적체가 일정 지역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지적인 규제 완화책을 이용하면 나인 효과가 생겨 부양보다 시장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미분양 적체 지역에 신규 분양에 대한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분양 적체는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물량이 있도록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유세 인상, 금리 인상, 재건축 규제 등의 악재로 주택 보유 자체가 부담"이라며 "정부가 미분양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저가로 분양하는 등의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 1면 '불편한 경제...'서 계속

## 재정지출 확대 요구에 2차 추경예산 기대감

### ◆ 확장적 재정정책에 거는 기대... 초이노믹스 전철 밟을까

해법은 없을까.

지난 6월 20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면서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OECD는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 컨퍼런스에서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할 유인이 크기 문에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용감축에 대비해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산업체질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도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체질 변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기업활력을 부활하기 위해선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mh@

## 시민단체, 檢 고발... 소비자원도 공동소송 예고

### >> 1면 '여·야도 금리조작...'서 계속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금리 산정시 은행 내규를 위반해 과도하게 이자를 수취한 일이 발생했지만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부과와 임직원 제재 등의 감독기구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투명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여신거래와 관련해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썩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 <은행권 대출금리 오류 관련 대응 현황>

| 구분      | 내용   |
|---------|--|
| 06월 21일 | 금감원, 9개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 발표      |
| 06월 26일 | 경남 하나 씨티은행 부당 이자 환급계획 발표                   |
| 06월 28일 |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대출금리 제도개선 T/F' 운영 |
| 07월 02일 | 민병두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07월 03일 | 시민단체, 경남 하나 씨티은행 검찰에 고발                    |
| 07월 03일 | 김관영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만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 부당 산정이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될 경우 금융당국은 이를 위반한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역시

은행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이 나설 경우 법개정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두고 은행권 자율 조치에서 제재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여론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다. 감독당국은 지난 21일 몇몇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명백한 오류는 확인했지만 어느 은행인 지는 밝힐 수 없고, 직접 제재할 방안도 없다고 밝히면서 질타를 받았다.

소송과 검찰수사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금융소비자원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l@

## 이랜드, 부채비율 100%까지 낮춘다



이랜드가 자본 확충의 새 틀을 짜고 중장기적 자본 구조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랜드그룹 이윤주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상반기 중 마무리 하기로 했던 1조 자본유치를 아쉽게 완성하지 못했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이하 메리츠)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면서, "인수금융 단계를 없애고 거래구조를 단순화하여 긴 호흡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며, 이미 관심 있는 해외투자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윤주 이랜드그룹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어 "유통사업부문인 이랜드리테일을 내년 상반기 상장하고 향후 이랜드월드 패션사업 부문까지 상장을 진행하여 중

장기적인 자본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올해 상반기까지 부채비율을 10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투자 구조설계를 선·중·후순위로 나눠 진행하다 보니 후순위 투자자가 자리잡는 상황에서 인수금융 참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거기에 각 순위별 투자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투자자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여 자본 확충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랜드그룹은 메리츠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존 회사채를 4000억 규모로 늘리고 만기구조를 장기화 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본확충은 인수금융을 과감히 없애며 거

래 구조를 단순화 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상장을 마친 이리츠코 크레딧 이어 유통사업부문인 이랜드리테일과 향후 이랜드월드 패션부문까지 순차적인 상장을 통해 중장기 자본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 CFO는 "그룹의 영업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이익 1000억 달성이 예상되는 등 그룹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류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자본구조를 건실하게 바꾸는 재무구조개선작업은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면서, "향후 계열사 상장 등을 진행하면서 자본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룹의 부채비율은 낮추기 위한 작업은 수치로 계속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말 그룹 연결 부채비율은 198%로, 올해 상반기에는 16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진 기자 tree6834@

# 시도 때도 없는 압수수색 글로벌 망신넘어 신용하락

## 흔들리는 검찰권위 (下) 무자비 압수수색

국내 굴지 대기업 중역인 A모는 지난해 경험한 일을 아직 잊지 못한다. 아침 7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자택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이 온 집안을 샅샅이 들춰낸 것이다. 이런 광경은 모시던 부모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자녀에게도 충격을 줬다. 당시 부인은 압수수색에서 받은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당사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무자비하게 할수록 성과가 높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입는 충격에 대한 배려나 인권존중은 온데간데 없다. 당시 중역은 “아이들 등교한 후에 해도 될 터인데... 이들은 아직도 맘 아파한다”고 회상한다.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후 삼성, 롯데, LG, 현대차, 효성 등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한 차례 이상 압

수색했다. 2월 26일 검찰은 다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 후인 4월 12일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4월 18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5월 15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 본사에 위치한 콜센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고 해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적법절차에 의거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역시 필요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잦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 업무까지 힘들어진다며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기업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문서는 물론이고 어떤 때는 전화기까지 가져간다”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수사를 방해하는 거냐는 위협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의 과잉의욕은 비극도 부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와 관련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대기중인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고위직 검사로서도 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은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압수수색 후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로 내사종결이 되어도 피의자와 피고인은 사과 한 마디 들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검찰이 법에 적힌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 필요적보석이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인사혁신처와 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기업에는 신세계 페이먼츠와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신세계 계열사에 취업했다는 의혹이다.

5월 9일에는 검찰이 총수일가 탈세혐의로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주 일가의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LG그룹 본사 재무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

## 삼성 롯데 등 대기업 수난시대 한진은 10곳서 11차례나 털어 檢, 과잉의욕에 피해자 자살도

수색을 당했다. 큰 박스 하나씩 들고 오는 수사관들의 보도사진이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해당 기업은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영문을 모르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업 직원이 겪는 마음고생도 적지 않다. 태산이 올라는데 겨우 쥐 한마리 나타난다는 말처럼 작은 사건 하나로 온 기업을 전부 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목표를 한정한다면 좀 낫겠는데,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벌써 몇번이나 탈탈 털어간지 모르겠다는 불평이 나온다. 심지어 “이런 일 당하면 무슨 기업할 맛 나겠냐”는 불멘 소리도 적지 않다. ‘적폐청산’이란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본연의 업무까지 힘들게 하는 잦은 압수수색에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크 등을 확보했다.

3월 18일에는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남기업 본사와 이 회사 회장인 고성완 전 새누리당 의원 자택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자원의료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명분이다.

대표 일가가 관련된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검찰을 포함해 정부 기관 10여곳의 압수수색 11번이 이뤄졌다. 투입인원만 240여 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삼성그룹도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모두 8건의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첫 압수수색은 지난 2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건으로 이뤄졌고, 검찰은 삼성전자 서초사업장과 수원사업장, 우면동 삼성서울R&D 센터 등 3개소를 압



공정위의 간부들이 퇴직 후 불법 재취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신세계 페이먼츠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사무실 앞에는 보안요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난민 비아냥·혐오 우려수준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을

## 혐오민국 길을 묻다 (上) 난민 갈등 해소해야

한국사회가 혐오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 사태를 두고 인터넷은 공론장 기능보다 혐오감을 재확인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선 자기안정과 경쟁 추구 본능이 위협받을 경우 혐오 표현이 발현될 수 있어,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은 예멘 난민을 향한 불안감과 혐오 정서로 도배되어 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가 등록됐다. 청원인은 2002년 제주도가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치안 문제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4일 현재 청원 동참인원은 60만 명을 넘어섰다. 치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이 청원의 댓글에는, 청원자의 의도를 벗어난 비아냥과 혐오 표현이 줄을 이었다. 댓글 중에는 “난민 찬성하는 분들 말로만 인권 외치지 말고 한명씩 데리고 살으라” “우리는 북한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무슬림까지는 아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만 500명인데 진짜 난민이냐. 당장 내보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난민에 ‘기회주의자’ 낙인  
난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같은달 19일 블로그를 통해 “난민들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며,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립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제주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난처 블로그 댓글에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 기회주의자들” “당신들 같은 인권팔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있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적개심과는 달리, 외국인 범죄율은 물론 이슬람교를 가진 범죄자의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다. 대검찰청의 ‘2017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범죄자 202만196명 가운데 외국인인 4만3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194만8966명 중 3만7928명으로 1.9%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종교에서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했다. 범죄자 종교는 2016년 불교(8.6%), 기

독교(8.2%), 천주교(2.4%) 순으로, 이슬람교는 상위 5개 종교에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을 내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에 비해 그 변동폭이 큰 편”이라면서도 “2012년 이후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희생양 찾기 대신 갈등 해소 지혜 모아야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혐오는 상대와 나를 구분하는 일종의 무리짓기가 극단화한 경우”라며 “난민 문제의 경우, 치안 문제 등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 안전에 관한 본능이 극도로 활성화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아 경멸과 욕설을 이어가는 이유는 카타르시스 때문”이라며 “개인적·집단적 스트레스 해소의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 난민법 폐지 청원 60만명 빗발 사회에 기여할 자산 될수 있어 인력부족 업종 취업 허가키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대사회와 달리 원로들의 중재자 역할이 무너진 오늘날은 외교, 사법제도 등 사회적 시스템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엮인 정치인의 표 계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게 배틀구를 만드는, 즉 자연스레 물꼬를 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난민법 폐지 청원 60만명 빗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며, 난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난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난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뼉을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우디 - 수소연료 전지

바르질라 - ESS

오토톡스 - 커넥티비티

넥스트도어 - 카셰어링

# 현대자동차, 글로벌 동맹으로 미래 동력 찾는다

신성장 기술 중심 파트너십 주목  
커넥티드·자율주행 경쟁력 확보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 사업 동력 확보에 나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잇따라 손잡으며 미래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위해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와 동맹을 맺었고, 이어 26일 재활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 바르질라와 손잡았다.

이번달에는 지난 3일 미래차의 핵심 기술인 '커넥티비티(연결성)'를 위해 이스라엘 벤처 기업 오토톡스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4일에는 호주의 차량 공유(카셰어링) 업체 카 넥스트 도어와 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잡고 차 키가 필요없는 P2P 카셰어링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모두 신성장 기술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방향성이 엿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현대차와 아우디의 수

소차 동맹은 의미가 남다르다. 아우디는 폴크스바겐그룹 내에서 수소전기차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이번 제휴로 현대차그룹은 폴크스바겐그룹 산하 모든 브랜드와 수소 전기차 기술 특허 및 주요 부품을 공유하게 된다. 수소전기차는 공해 배출물이 없어 기존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이지만,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청정 기능을 갖고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린다.

현대차그룹은 ESS 제품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를 바르질라와 공동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로,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오토톡스와 손잡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의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토톡스는 커넥티드 카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신 칩셋(반도체 직접회로)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커넥티드 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받으며 움직인다는 점에서 '달리는 컴퓨터'로 불린다. 도로·날씨 정보 등을 취합해 자율주행에 적용한다. 이때 통신 칩셋은 차량 외부의 무선통신과 내부의 유선통신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2008년 설립된 오토톡스는 V2X(차량과 사물간) 통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와 오토톡스는 차세대 커넥티드 카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셋을 공동 개발한다. 현대차는 협업 과정에 현대모비스·현대오트론 등 계열사를 참여시켜 그룹 전체의 미래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호주 카 넥스트 도어와 함께 2020년

첨단 ICT를 활용한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3년 호주에서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한 '카 넥스트 도어'는 개인이 개인에게 시간 단위로 차를 대여해주는 P2P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차를 소유한 사람이 전용 앱에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대를 설정해 놓으면 주변에 차가 필요한 고객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뉴캐슬 등 호주 4대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 수는 6만2000명, 월 평균 대여 성사 건수는 8000건 수준이다. 현대차는 '카 넥스트 도어'와 협업해 고객의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는 '현대 오토 링크'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 소유자와 대여자 간에 차 키 전달이 필요 없는 편리한 P2P 차량 공유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 5G 통신장비 전세계에서 검증



러시아 최대 이동사 MTS와 협력  
유럽서 고정형 시범서비스 마쳐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이동사 MTS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삼성전자의 5G 장비를 활용해 HD 화상통화와 초저지연 비디오게임, 4K UHD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등 5G를 활용한 실사용 사례 시연에 성공했다.

과학기술 관련 박물관인 포포프 무선통신 중앙박물관에서 이뤄진 이번 시연에서 ▲5G 라우터 ▲프로토타입 태블릿 ▲5G 무선 액세스 장치 ▲가상화된 RAN과 코어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삼성 솔루션이 활용됐다.

2014년 LTE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와 함께 협력을 시작한 양사는 2017년 LTE-A 프로, 사물인터넷(IoT) 기능으로 MTS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어 5G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2일(현지시간)에는 유럽 이동사 오렌지, 시스코와 함께 루마니아 제2 도시인 클루지에서 5G 기

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 액세스(FWA)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클루지의 여러 가정에서 1개월만 동안 진행된 시범서비스에서 삼성전자 실내외 5G 가정용 단말과 소형화된 5G 기지국, 네트워크 설계 서비스 등이 사용됐다. 또한 시스코 차세대 가상화 코어 제품인 시스코 울트라 게이트웨이 플랫폼 등이 추가로 이용됐다.

3개시는 이달 2~3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5G 장비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와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지능형 CCTV 솔루션을 시연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수 벤더의 장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중 제품 간 호환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5G 네트워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장점이 있다.

아르노 방파리스 오렌지 무선통신 네트워크 부문 전무는 "26㎢ 지역에서 5G 고정 무선 액세스의 첫 번째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쳤다"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5G 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장비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본 통신사 KDDI와 함께 일본 프로야구 공식 경기에서 5G 기술로 경기의 위치·장면을 자유롭게 시청하는 자유시점 영상 실시간 전송에 성공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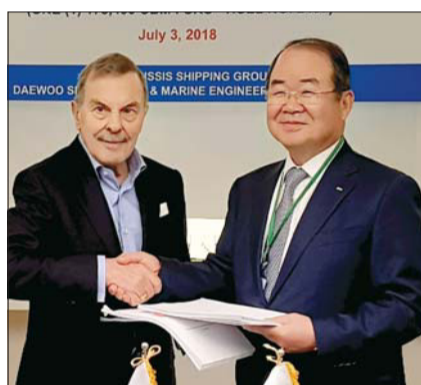
## 그리스 최대 해운사의 '100번째 프로포즈'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  
대우조선해양 100번째 선박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창사 이래 최초로 단일 선주로부터 100번째 선박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17만3400㎡ 규모의 LNG-FSRU(액화천연가스·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1척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FSRU는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안젤리쿠시스 그룹으로부터 100척의 선박을 수주하게 됐다. 금액은 약 110억 달러(약 12조원)에 달한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 대우조선해양에 9만8000톤급 원유운반선 첫 발주한 이래 24년 동안 지속적으 무려 100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그 중 82척이 성공적으로 인도됐으며 현재 18척의 안젤리쿠시스 그룹 선박들이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오른쪽)과 안젤리쿠시스 그룹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이 LNG-FSRU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수주절벽 상황과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지난 2015년 이후에도 24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또한 정성립 사장과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의 인연도 조명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이 선박영업담당이었던 1994년 대우조선해양과 첫 관계가 시작됐으며, 정 사장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사장으로 따른 마지막 수주가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VLCC 1척이었다. 지난 2015년 정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복귀한 뒤 가장 처음으로 계약한 선박 또한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2척이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현재 총 22척의 선박을 세계 각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다. 그중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중인 선박은 18척으로 그 비중은 82%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젤리쿠시스 그룹과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오면서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은 물론 그룹 경영 일선에 나선 사주 딸인 마리아 안젤리쿠시스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대를 이어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단일 선주로는 100척의 선박을 발주한 첫 고객이며, 이 외에 싱가포르 BW 65척, 덴마크 머스크 55척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대량의 선박을 발주했다.

한편 이번에 수주한 LNG-FSRU는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1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정영문 기자 yw964@

## 자동문도 원격으로... '스마트 도어록' 선배

삼성SDS, 국내외 동시 출시

삼성SDS가 국내 최초로 와이파이 일체형 IoT 스마트 도어록(SHP-DR900·사진)을 국내외에 동시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SHP-DR900은 배터리 수명을 두 배 향상시킨 저전력 와이파이 칩을 내장해 실내 무선 공유기와 항상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문 열림 상태나 침입 시도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사용자는 가족이나 친척 방문 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모든 출입 이력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문 열림 방식도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집에서 나갈 때 도어록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과 거리를 감지해 손만 살짝 닿아도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부드러운 문 열림을 구현했다.

특히 삼성SDS는 정보 유출과 해킹 방지 등 보안성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최신형 지문 센서를 적용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을 인식하는 등 편의성도 향상되었다. /구서윤 기자

## 현대차, 천안에 '글로벌 러닝센터' 개원

현대자동차가 내실 강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충남 천안에 최신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시설과 학습환경을 갖춘 '글로벌 러닝센터'를 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는 기존에 서비스 기술교육을 진행했던 현대차 천안 연수원을 신축한 것으로, 대지면적 4만8790㎡(1만4759평)에 연면적 4만1484㎡(1만2549평)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이뤄진 교육동과 생활관으로 구성됐다.

교육동의 경우 고객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롤플레이 교육장, 신차에 적용된 첨단 신기술과 주요 기능을 체험하는 주행·테스트 트랙, 고급차 및 승용 서비스 기술 교육장, 상용차 특화 교육을 위한



현대차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 /현대자동차

중대형 상용 정비 기술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는 국내 서비스 정비 기술교육 중심이었던 예전과 달리 국내외 판매, 상품, 고객 응대(CS), 정비 서비스 부문을 아우르는 고객 접점 종합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가전제품 서비스 최고 평가

LG전자가 가전제품 서비스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4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제품 AS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품질 평가모델이다. 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LG전자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를 모니터링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제품수리 과정을 각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톡톡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 LG화학, 전기차 14만대분 고용량 배터리 원재료 확보

〈수산화 리튬〉

加 네스마스카라툼과 공급계약  
2020년부터 5년간 연 7000톤  
“안정적 배터리 원재료 공급 집중”

LG화학이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했다.

LG화학은 캐나다 네스마스카라툼(Nemaska Lithium)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2020년 하반기부터 매년 7000톤의 수산화 리튬을 5년간 공급받게 된다.

7000톤 규모는 고성능 전기차(한 번 충전으로 320km 이상 주행 가능) 기준 약



배터리 양극재 참고 이미지.

/LG화학

14만대 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수산화 리튬은 배터리 용량을 높이는 ‘니켈’과 합성이 용이해 고용량 전기차 배

터리 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트북·휴대폰 등 정보기술 기기용 배터리는 주로 탄산 리튬이 사용된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원가 절감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양극재 내 값 비싼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높이는 추세다. 기존 NCM622 양극재 대신 NCM712 등 하이-니켈 양극재가 채용된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다.

니켈은 보통 코발트·망간 등과 결합해 전구체를 이룬 후 고온에서 리튬과 함께 녹여낸 뒤 합성시키면 양극재가 된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원재료 중 하나다.

하지만 니켈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리튬과 합성이 잘 안 된다. 따라서 니켈 함량이 높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에는 탄산 리튬 대비 녹는 온도가 낮은 수산화 리튬이 사용된다. 수산화 리튬의 녹는 온도는 섭씨 462도, 탄산 리튬이 녹는 온도는 섭씨 723도다.

유지영 LG화학 재료사업부장은 “고

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 수급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안정적인 배터리 원재료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여러 배터리 원재료 업체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에는 세계 1위 코발트 정련회사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법인을 설립, 원재료 공급 보장 및 제품 우선 공급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황산니켈 생산업체인 캄코(고려아연 자회사)의 지분을 10% 갖췄으며 2016년 9월에는 GS이엠의 양극재 사업을 인수, 양극재 생산기술 고도화 및 전구체 제조 기술력을 구축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한국타이어, 글로벌타이어 시장 영토확장

獨 대표 유통점 ‘라이펜 물러’ 인수  
“유럽 전지역 통합 시스템 구축할 것”

한국타이어가 독일의 타이어 유통점을 인수하며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독일 대표 프리미엄 타이어 유통업체 ‘라이펜 물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라이펜 물러는 1966년 1호점을 시작으로 4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직원 수는 700여 명이다. 연간 승용차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등을 240만 개 이상 판매하는 실적을 내왔다.

한국타이어는 라이펜 물러가 보유한 매장을 통해 유통사업 확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독일에 유통사업 모델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유통 시스템 확장으로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유통



라이펜-물러.

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경쟁력을 강화해 타이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통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일찍부터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유통 사업 강화와 혁신적 유통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호주의 5대

타이어 유통점 중 하나인 작스 타이어즈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글로벌 리딩 브랜드 위상 강화를 위해 대규모 생산시설과 R&D 센터, 혁신적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T-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솔루션 사업 추진

고가의 GPU 효율적 사용 가능

SK텔레콤이 엔비디아코리아와 손잡고 국내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코리아와 GPU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 외에도 아이엔소프트, 베이넥스도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 등은 연내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년 간 자체 개발해 자사 데이터센터에 적용한 사설 GPU 클라우드 솔루션 ‘SCALE(SKT Cloud for AI Learning)’를 제공한다. 아이엔소프트는 솔루션 판매 및 유지·보수를, 엔비디아코리아와 베이넥스는 AI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SK텔레콤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아이엔소프트와 함께 ‘GP

U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보안·공장자동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GPU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GPU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설 GPU 클라우드 솔루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GPU 클라우드 솔루션은 고성능 AI 연산에 필요한 다수의 GPU 자원을 가상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상화된 GPU 자원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고가의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솔루션은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최신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AI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공공기관 통지서 모바일 메시지로 전달”

KT,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KT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모바일통지(공공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보내기 위해 사용하던 종이우편 형태의 고지서와 통지서 등을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 등을 종이우편으로 전달했다. 우편 발송 방식은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전달·수령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도입된 모바일 앱 서비스도 이용을 위해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확산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T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를 모바일 메시지로 보내는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범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서비스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KT

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속한 전달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T는 이를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했다. 다른 이동통신사와도 협정을 맺고 통신사에 상관없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의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공공기관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수령한 모바일 통지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발신번호로 바로 문의할 수 있다. /안병도 기자

## LGU+ ‘즐거운 고객센터’로 노동부 장관상 수상

LG유플러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18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객센터 상담사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 및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 우수사례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삶의 행복을 위한 복지 제도 마련 및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6개 업체 중 최우수사례로 수상했다.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센터는 ▲환경조성 ▲마음지킴이 ▲감정보호 ▲자기성장 ▲복리후생이라는 5가지 주요 내용으로 상담사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사옥에서는 피트니스센터와 요가실, 안마실, 휴게실을 운영해 감정노동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울러 심리상담실과 블루박스(사내소리함)를 운영해 감정노동으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지킴이’에 힘쓰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4일 SK텔레콤 올지로 본사에서 SK텔레콤, 엔비디아코리아 등이 사업 추진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박진호 ICT기술원장, 엔비디아코리아 유응준대표, 아이엔소프트 황광익대표, 베이넥스 연광홍 대표. /SK텔레콤

## LG 휘센 에어컨 전기 아낀만큼 포인트 받는다

LG전자는 휘센 에어컨을 구입하는 고객이 전기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LG 휘센 절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전력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 DR(소규모 전력 수요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이며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전력거래소가 에너지 절감 미션을 내리면 LG전자의 인공지능 씽큐(ThinQ) 서버가 캠페인에 참여하는 가구에서 사용하는 휘센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

로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 미션이 해제되면 에어컨은 자동으로 고객이 원래 설정한 희망온도에 맞춰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수 가운데 70% 이상이 해당 방식 절전에 참여하는 경우 1GW(기가와트)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원전 1기가 만드는 전력량에 상당한다.

이 캠페인은 다음달 말까지 LG 휘센 에어컨을 구입한 고객을 가운데 LG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선착순 1000명이 대상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보고도 못 믿을 연체·부실율 '0' P2P 투자 전, 한번 더 확인해야

사기 수사업체들 고의조작 의혹  
투자 자금, 타상품 상환금 조작 등  
공시 강화로 위험요인 차단해야

#. 6개월 전 P2P투자를 시작한 A씨.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연체율 0%, 부실율 0%를 보고 확신이 들어 조금씩 모아왔던 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잠적하면서 연체율과 부실률마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A씨는 대체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P2P(개인 간)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연체율과 부실율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P2P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

하며 명확하게 공시토록 했음에도 업계 내에선 별다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들 대부분이 연체율과 부실률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일 부도 처리된 헤라펀딩을 제외하고 오리펀드, 더하이원 펀딩, 아나리츠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3곳 모두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기록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다른 상품 상환금을 갚으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계속 0%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부실채권(NPL)처리,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채권매각을 통해 연체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눈속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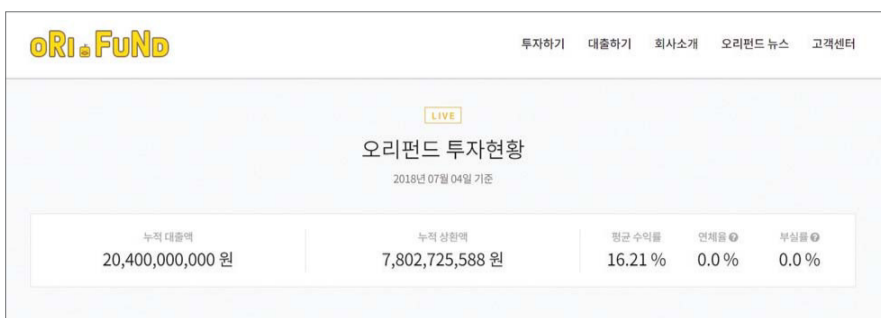
이어 그는 "투자자들이 투자 전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수익률이다"며 "이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률을

삭제하고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클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업체 37개 중 13개사 표시되어 있고, 24개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 부실률 표시가 투자자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발생될 확률이 있는 업체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연체율과 부실률의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상품별 연체율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건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P2P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을 분류해 유형별로 연체율과 부실률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제재가 없어 P2P업체 내부의 자정작용이 없다면 투자자는 또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연체율과 부



대표의 잠적으로 수사중인 오리펀드 홈페이지에는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게시되었다. /오리펀드 홈페이지 캡처



자금돌려막기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아나리츠 홈페이지,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게시되었다. /아나리츠 홈페이지 캡처

실률을 고의로 조작하면 투자자들은 올바른 P2P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연체율과 부실률이 0% 업체는 투자 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업체들로 P2P업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며 한 공간에 모든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P2P 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 신용리스크 한번에...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신용위험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목적의 기존 신용위험가중자산산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내부 관리 목적으로 그룹 통합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및 통합위험상황분석시스템을 확대 구축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BIS 비율 산출 시 제도적으로 제외됐던 보험회사(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까지 포함해 그룹 공통 기준으로 신용리스크 내부자본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룹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스

트레스 위험량을 산출하고 BIS 비율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위험상황분석시스템도 구축 완료했다.

농협금융은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회사별, 자산별 리스크 대비 수익성 평가방법을 더욱 정교화 하고,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상황분석을 실시해 취약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허충희 리스크관리부부장(CRO)은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2022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통합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농협금융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수익성을 더욱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6개월 숨가쁘게 달렸다... 하반기도 매진을”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전국 소통경영

영업점·지역영업본부 등 순방  
보성군 호우피해 현장도 방문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지난 3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과의 소통경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장경영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이 행장은 영업점과 지역영업본부를 순방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상반기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에서 진행된 '2018 하반기 현장경영'에 참석한 이 행장은 지난 6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지난 3일 현장경영으로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를 방문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부했다. 이 행장은 "사업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주민과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행장은 이에 앞서 전남 보성군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

을 살피고,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농협은행은 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 최대 1.6%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외화예금, KB와 함께라면 OK!”

### KB국민은행 신규가입 이벤트

KB국민은행은 9월 말까지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과 'KB모바일 외화예금', 'KB국민업(UP)외화정기예금'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외화예금~KB와 함께라면 OK! 신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외화입출금 및 해외주식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기간 중 영업점 및 모바일을 통해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외화로 입·출금 시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8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KB모바일 외화예금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가입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이 외화로 입·출금 시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5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업외화정기예금은 1개월 단위



로 금리를 운용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된 이율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외화정기예금이다. 이벤트 기간 중 신규 입금 시 50% 환율 우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 가입 고객에게 해외주식거래, 자산보유실적 등에 따라 모바일 커피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KB모바일 외화예금과 KB국민UP의 화정기예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각각 모바일 커피상품권과 아이스크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TM 보험대리점 계약건수 7.7% ↑ 초회보험료는 '207억 원' 5.9% ↓

텔레마케팅(TM) 보험대리점의 계약건수는 늘었지만 초회보험료는 다소 줄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개 TM보험대리점의 신계약 건수는 61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전체 보험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초회보험료는 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17)의 영향으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줄었다.

상품별 판매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112억원, 95억원이다. 핸드폰 등 전화를 통한 판매에 적합하

고,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 유인이 높은 소액 보험료(평균 3만2000원) 위주의 상해·질병, 암, 운전자 등 보장성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는 각각 14억원(6.5%), 3000건(0.5%)에 그쳤다.

판매채널별로는 흡소핑사의 초회보험료가 78억원(3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사는 58억원(28.5%), TM전문대리점은 41억원(19.8%)을 기록했다.

신계약 건수 기준도 흡소핑사가 24만3000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카드사(18만2000건), TM전문 보험대리점(12만5000건) 순이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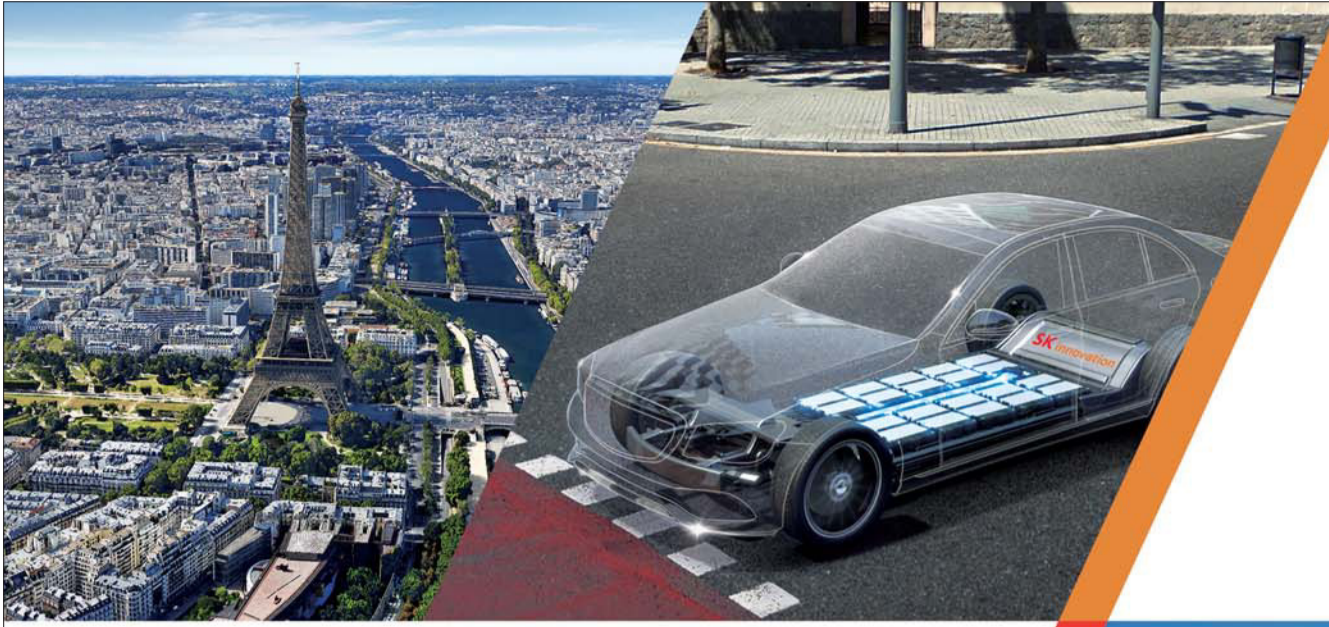
## 서비스품질지수 '1위'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에서 5년 연속 은행부문 1위(누적 17회)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로서 지난 200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고객만족도 조사다.

특히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객별 맞춤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의 고객지향성, 전문성 등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펼친 점과 디지털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고객중심의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유럽의 전기차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고효율 전기차 배터리 장착

# 중국의 화학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한중 최대 합작 화학단지 개발



# 미국의 에너지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의 독자운영으로 미국 셰일가스 생산

# 러시아의 윤활유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윤활유 러시아 평가 1위



#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 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칸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NH투자증권

MTS 종목 비교 분석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위해 지난 2일부터 QV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종목 비교 분석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종목 VS 종목'은 NH투자증권의 자체 로보어드바이저가 진단하는 종목 점수를 기초로,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과 동일 업종의 다른 종목을 비교해 준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종목과 투자 매력도를 비교하면서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생Buy리포트' 서비스도 추가로 신규 제공된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공하는 투자이견 매수(Buy)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력을 살펴볼 수 있다. 종목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표주가와 현재주가의 괴리율을 통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리자드 ELS 등 3종 공모

하나금융투자는 쿠폰 경쟁력이 있는 리자드 ELS 등 과생결합상품 총 3종을 6일까지 모집한다. 먼저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 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4.8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650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5.1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651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k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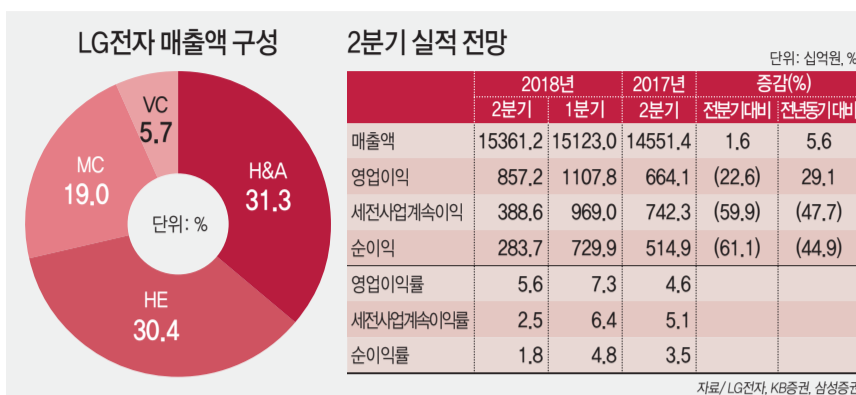
KB증권

국제신용등급 'A-' 획득

KB증권은 4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 (Standard and Poor's)로부터 국제신용등급 'A-'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기신용등급 'A-'는 국내 시중 증권사가 획득한 국제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S&P는 KB증권을 KB금융그룹의 핵심회사로 평가하며, 국내 증권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으로 출범한 KB증권은 2018년 1분기 말 기준 KB금융그룹 내 순이익 기여도 8.1%를 차지하는 등 그룹 내 선도 계열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 LG전자, 스마트폰 '반짝' 흥행... 실적 '심표'

영업익 전분기비 22.6% 감소  
MC·VC 부문 영업손실 예상  
지분법 이익에서도 적자 우려



LG전자가 전 분기 대비 후퇴한 2분기 실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후계자' 꼬리표를 떼고 재계 서열 4위 그룹 지휘봉을 잡은 구광모 회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LG전자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8572억원이다. 예상대로라면 전분기 대비 -22.6% 줄어든다. 증권가 예상 평균 영업이익 8730억원보다 낮다.

매출액은 15조3612억원으로 1.6% 증가가 예상된다.

부분별 영업이익은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에서 1721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VC부문도 154억원 영업손실이 예고됐다. 1분기 168억원 영업흑자를 낸 LG이노텍도 219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나마 생활가전(H&A, 5348억원), 홈엔터테인먼트(HE, 4300억원), 기업 간 거래(B2B, 754억원), 기타(391억원) 등이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SJ(조성진 부회장의)' 마법은 반짝효과에 그쳤다.

지난 2010년 LG전자는 폭풍에 휘말린 뚝단배와 같았다. 불과 1년 전인 2009년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LG전자는 2010년 들어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피쳐폰(일반 휴대전화) 시대 승승장구했던 휴대전화 사업이 스마트폰 등장이라는 시류를 읽지 못해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 결정타였다.

연구개발(R&D) 등 기업의 내실보다는 외형이나 포장에만 집중했던 당시 경영진의 판단 미스도 더해졌다. 경영위기가 심각해지자 LG는 구본무 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오너가 일원인 구본준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임기 중 대표를 바꾸는 전례가 거의 없는 LG그룹의 전통을 생각하면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당시 LG전자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데 있다. 미래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현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LG그룹은 2016년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운다. 조 부회장을 원톱에 앉힌 것. 그러나 증권가

서는 지난해 7368억원의 적자를 낸 MC 사업부문이 올해도 5794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스마트폰 부진에는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기용하는 등 스타마케팅에도 나섰지만 되레 마케팅비용이 증가해 손실폭만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월에는 LG전자가 ZKW를 약 1조4400억원에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신통치 않다. LG전자는 2013년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VC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전장 사업을 강화해왔지만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다. LG전자 VC사업본부는 지난해 영업손실 101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7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분법 이익도 적자가 우려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LG디스플레이에서도 올해 1895억원 규모의 지분법 손실이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지난 1분기 6년 만에 첫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증권 이종욱 연구원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LG디스플레이의 우려를 반영해 2017년과 2018년 지분법 손실을 각각 1620억원, 1895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는 LGD 순손실을 각각 4000억원과 5000억원으로 가정한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LG전자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 아래서 거래되고 있다. 과거 PER이 8배 밑으로 떨어진 적은 딱 3번이다. 리만사태(2008년), 피쳐폰 부진(2010년), MC사업부 적자전환과 패널 가격 상승(2017년) 등의 시기다.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대차증권은 최근 환율이 TV 사업 부문에 비우호적이라며 LG전자의 목표주가를 14만3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내렸다. KB증권은 13만500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내렸다. 삼성증권도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하향했다.

재계와 LG 내에서는 구 회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보여줄 히든 카드에 주목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60조원 시대를 연 LG전자가 그 핵심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디스플레이·자동차전장 등 LG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첨단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맥쿼리에 날세운 플랫폼파트너스 "금융위 승인받아 주총 열 것"

MKIF가 주총 제안 거절 땐 강수 논란 장기화 속 정치권까지 가세

〈맥쿼리인프라 투자 SOC vs 타 민간·재정 SOC〉

| 도로명    | 보유회사 | 총거리 (km) | 요금(원)  | km당 요금(원) | 경부 대비 | 외곽 대비 | 기점   | 종점   |
|--------|------|----------|--------|-----------|-------|-------|------|------|
| 인천대교   | 맥쿼리  | 21.4     | 9,400  | 440       | 9.8배  | 5.0배  | 인천연수 | 인천공항 |
| 공항공속도로 | 맥쿼리  | 36.6     | 6,600  | 181       | 4.0배  | 2.0배  | 경기도양 | 인천공항 |
| 서울-춘천  | 맥쿼리  | 61.4     | 5,700  | 93        | 2.1배  | 2.1배  | 미사   | 춘천   |
| 경부     | 재정도로 | 415.4    | 18,600 | 45        |       |       | 서울   | 부산   |
| 서울외곽순환 | 국민연금 | 36.3     | 3,200  | 88        |       |       | 일산   | 퇴계원  |

\*인천대교 요금은 km당 440원으로 재정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대비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음.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은 km당 93원으로 경부고속도로 대비 2.1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1.3배 높음.  
/자료=정재호 의원실

맥쿼리에 대한 플랫폼파트너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MKIF·맥쿼리인프라) 이사회가 주주총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를 통해 주총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MKIF 측은 플랫폼파트너스에게 주총 소집 권한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MKIF가 운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절성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는 오는 9일 MKIF 운용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MKIF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오는 26일까지 MKIF가 주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 주

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자산운용이 지난 12년간 맥쿼리인프라를 운용하면서 전체 분배금의 32.1%에 달하는 5353억 원을 보수로 가져갔다"고 밝히며 보수 과다 책정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MKIF에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임 안건을 다룰 주총 소집청구서를 보냈다.

플랫폼파트너스의 요구는 3%를 상회하는 운용보수를 다른 인프라펀드 평균수준인 1%로 줄이고, 성과보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총에서 펀드 운용사를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운용제안서를 통해 MKIF의 운용수수료를 매년 순투자자치의 0.15%만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매년 순투자자치의 1.25%를 받는 맥쿼리자산운용 보수의 8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현재 정부는 민자 SOC의 과도한 이용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맥쿼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SOC의 이용요금에 다른 민자사업 도로와 비교해서 최대 10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km당 요금은 88원이지만 맥쿼리가 운영하는 인천대교의 요금은 440원으로 5배 높은 수준이다.

정재호 의원은 MKIF가 성과보수를 폐지하거나 혹은 운용사를 교체할 경우 민자도로 이용요금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KIF가 맥쿼리 자산운용에 쥐여주는 수수료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SOC 운용을 통해 내야 하는 수익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의원 측은 "과거 우먼산 터널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맥쿼리가 시혜적으로 요금을 내린 바 있다"며 "자산 재구조화를 통해 도로 이용요금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재구조화란 기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이용요금을 줄이는 등 투자계약 조정을 의미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

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 4명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증권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회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유령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21명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구대표는 "다신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 “영세업종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속히 도입해야”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

규모작을수록 최저임금미만율 ↑  
소상공인들에 현행제도 무의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가 농·임·어업, 음식점, 주점, 숙박, 편의점 등 영세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도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에 벅찬 업종들을 골라 이참에 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해 당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이동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정용주 경기도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기중앙회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의견이 모아졌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용자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최

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전산업 평균 미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전산업 평균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2016년 기준으로 내놓은 전산업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3.5% 수준이다. 이는 100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3.5명이라는 의미다. 전체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을 웃도는 업종은 농·임·어업(42.8%), 숙박 및 음식점업(34.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2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4.8%), 부동산업 및 임대업(19.5%), 운수업(13.6%)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2017년 기준)은 1~4인 기업이 31.8%, 300인 이상이 2.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실정이다.

미만율이 평균 이상인 업종 가운데 1인당 영업이익(전산업 평균 1700만원)과 부가가치(“ 6200만원)가 상대적으로 낮

은 업종을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회는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미만율이 높아져 결국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예년까지 구태의연하게 구분적용을 논의하던 방식과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회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미만을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하자는 의견을 이날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폼페이오, 3차 방북... ‘비핵화 시계’ 빨라지나

(미국 국무장관)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사흘간 방북 후 일본서 한·미·일 장관회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잠시 멈춘 듯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세 번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회담 이후엔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일본 도쿄로 이동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다. 강 장관은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과 회의를 마친 후엔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길에 합류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비핵화 추가 논의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또 현재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북으로 향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손에 한반도 비핵화 해결을 위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게 될 폼페이오 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FVD’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한 것이란 평가다.

당초 미 정부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 nuclearization)였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선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최종 합의문에 들어갔다.

5일 북한을 방문하게 될 폼페이오 장관이 이치러프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낸 것은 비핵화 ‘검증’(Verifiable)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3차 방북을 앞두고 불거지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한편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시간표)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더 나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1년 이내 시간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provide)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승호 기자



‘남북이 한팀’ 통일 이론 농구단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혼합경기에서 남북 ‘평화팀’ 남자 선수들이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혼합경기는 남북 6명씩의 선수로 구성된 ‘평화팀’과 ‘번영팀’이 경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동반성장협’ 출범

# 중소와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공공기관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 중소기업들과 소통·교류를 넓혀가기 위해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했다.

한국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중 1호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중부발전도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재훈 사장과 협력중소기업 75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는 한수원과 협력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회에는 기계기술, 계전기기술, 일반기술, 해외시장개척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75개 협력사가 함께 한다.

협의회는 분야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총회, 간담회, 벤치마킹 등 교류 및 협력활동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은 교류활동비를 지원하고 한수원 동반성장사업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해 협의회

## 《남동발전 임금격차 해소 추진 방안》

|           |                        |
|-----------|------------------------|
| 기업별 추진사항  | 종업원 인건비 지원 (50억원)      |
|           | 공동기술개발 지원 (260억원)      |
|           | Test Bed 지원 (15억원)     |
|           | 창업기원 육성 (30억원)         |
|           | 글로벌 육성사업 (24억원)        |
|           | 생산성 향상 지원 (27억원)       |
| 경영안정 자금지원 | 해외진출 지원 (9억원)          |
|           | 동반성장 협력대출펀드 조성 (100억원) |

및 회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보존,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수원은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도 자원이 확대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北진출 계획 없어”

기업 306곳 남북경협 의견 조사  
최우선과제 ‘정책 일관성’ 39%

##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남북경제협력 이 활성화되도록 북한 시장 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만이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정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중견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남북경협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는 남북경협 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56.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또 남북경협 관련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 정책 추진’(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따른 체계적 산업인프라 구축’(30.7%), ‘실질적인 투자 보장 지원책 마련’(19.0%), ‘북한시장 선점 위한 남북간 경제협정 체결’(5.2%)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진출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남북경협 지속 불확실성’(61.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외에도 ‘초기 투자비용 확보 및 높은 진입장벽’(17.3%), ‘물류·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 부족’(11.8%), ‘재산권 및 기술보호’(4.6%) 등을 많이 지목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수준은 ‘약간 기대’(44.8%), ‘보통’(33.7%), ‘매우 기대’(12.4%), ‘별로 기대 안함’(6.8%), ‘전혀 기대 안함’(2.3%)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라코 모델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라코'**

롯데백화점 본점 1층서 대대적 개편·오픈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추천 화장품 판매



시코르 아이파크몰 용산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시코르'**

해외 다양한 브랜드·체험형 이벤트 각종 면세점·호텔 인근서 K뷰티 알리기 '톡톡'



유라이즈 목동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U-라이즈'**

트렌디한 50여개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백화점 채널의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

# 라이프스타일·뷰티... 백화점, 너도나도 '편집숍' 키우기

백화점들이 편집숍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시코르'와 브랜드를 리뉴얼한 롯데백화점 '라코'에 이어 현대백화점도 새 편집숍을 오픈했다. 그간 편집숍은 각 기업이 해외 브랜드·트렌드를 들여와 시장 반응을 살피는 '안테나숍' 역할에 그쳐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기류가 바뀌는 추세다. 특히 과거

와 달리 자체 브랜드(PB) 등 단독 상품 확대에 집중, 수익성을 확보해 진지한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는 행보를 견고하고 있다. **◆현대백,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지난 22일 문을 연 편집숍 '보우(Balance Of Woman)'가 대표적이다. 보우는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의 합성어 웰니스

(wellness) 콘셉트의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이다. 매장 슬로건에 맞게 여성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프리미엄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을 '파우더룸', '리빙룸', '드레스룸'으로 나눴다. 파우더룸에는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헤어·스킨케어 등을, 리빙룸에는 건강차류(티컬렉

티브), 디퓨저, 욕실용품 등의 카테고리를 선보였다. 일반적인 편집 매장과는 달리 매장의 1/3(10평)을 가림막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오는 8월 천호점, 10월 판교점을 오픈한다. 프리미엄 생활용품 편집매장 'HbyH'를 찾는 고객도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무역센터점에 오픈해 현재 압구정본점, 목동점, 대구점, 울산점 등 9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 편집숍은 소형 가전 브랜드 레플랫(샌드위치 메이커, 미니 믹서기 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발굴해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매장별로 상이하지만 대략 1억 5000만원~2억 수준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언더라이즈'의 리뉴얼 버전인 'U-라이즈'도 지난 5월 무역센터점 6층에 오픈했다. U-라이즈는 패션·잡화·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패션 편집매장으로 젊고 트렌디한 50여 개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로 채워져 있다. 편집숍에 입점한 브랜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화점 채널에서 각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테리어와 판매사원은 현대백화점 측에서 모두 공급한다. 현대백화점은 편집숍을 통해 브랜드와의 협력과 상생 관계를 추구함은 물론, U-라이즈를 통해 젊은 2030 고객층을 확보하고 다양한 세대의 신규 고객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와 롯데는 화장품 집중** 지난 2016년 12월 대구점을 시작으로 처음 선보인 신세계의 '시코르'는 지난달 29일 용산아이파크몰 3층에 313.5㎡ 규모로 오픈, 전국 13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특히 시코르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

는 지난해 12월 오픈, 올 1~5월 누적 매출이 목표를 10% 웃돌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브랜드와 체험형 이벤트가 고객들의 흥미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시코르는 점포별로 상이하지만, 약 150~200개 수준의 브랜드를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시코르 코엑스몰점은 K뷰티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면세점과 호텔 등 관광 인프라가 많은 지역인만큼 외국인 고객도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연내 시코르 매장을 2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도 화장품 편집숍 '라 코스 메디크'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브랜드명을 '라코'로 바꾸고 친근한 콘셉트로 재정비해 최근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1층에 문을 열었다. '라코'의 주 타깃층은 10대~30대 초반으로 롯데는 이 타깃층을 잡기 위해 독특한 시도를 했다. 화장품 매장 내에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시설을 갖추고, 전체 매장 중 3분의 1을 '트레저헌터 존'으로 꾸몄다.

트레저헌터는 뷰티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기획사다. 롯데와 트레저헌터가 계약을 맺고 김이브, 양명, 유갯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화장품을 라코에서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해 편집숍을 키우는 추세다. 백화점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명품 브랜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입소문난 제품들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며 "아울러 외국인들에게도 K-뷰티를 더욱더 활발하게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oouil.co.kr



#경상남도 #통영시 #소매물도

##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으로 당신의 보통날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travelweek.visitkorea.or.kr



## 우리은행, 중소기업·동남아 진출 협약

수신상품 금리우대 등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은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와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남방지역 진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업무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도 및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회원사가 해외 진출할 경우 ▲양 기관의 인도와 동남아 네트워크 사무공간 등 인프라 제공 ▲현지 진출을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이다. 우리은행은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에게 해외 여신·수신상품 금리 우대와 외환 등 현자금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이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캄보디아 WB과 이انس 인수 등으로 국내 최대인 413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인 인도와 동남아지역에 354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해 국내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www.a1realty.co.kr

용산의 메카 동빙고동 유일한 '단지형 고급빌라' 프리젠카운티

# PRIZEN COUNTY

유엔사, 수송부 부지개발  
한남동 뉴타운 재개발사업  
용산민족공원 조성  
신분당선 동빙고동역 연장개통

분양문의

에이원리얼트루컨설팅  
02.749.5355

선착순  
마감

## 모델하우스 오픈



다양한 분양TYPE



최고의 투자가치  
최적의 주거환경



A type ——— 116 m<sup>2</sup>

B type ——— 169.3 m<sup>2</sup>

C type ——— 145.6 m<sup>2</sup>



# 은행 “인재 뽑으러 고대 간다”... 이전 ‘주판’ 대신 ‘코딩’

디지털부문 신설·관련 채용 늘어  
KB국민銀 신입 33%가 ‘디지털’  
비대면확대로 IT 인력 필요성 ↑

은행권에 이른바 상경(商經)계의 ‘주판’ 시대와 이공(理工)계의 ‘코딩(Coding)’ 시대가 공존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정보 기술(IT) 전문 인력 채용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핀테크 기술의 상용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술 전문인력(IT·빅데이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은행권의 기술전문인력 채용 증가와 은행 영업점포 감소세로 점포 인력 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 ◆IT업종에 기술전문직 채용 ↑

올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크게 늘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KB국민은행 600명 ▲신한은행 450명 ▲우리



지난해 9월 진행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참가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행 550명 ▲KEB하나은행 최대 500명 등으로 예년보다 466명(28.5%) 늘었다. 아직 하반기 채용규모를 확정짓지 않은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도 5개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 규모는 2950명으로 지난해보다 35.6%(775명) 늘었다.

이 가운데 4대 은행의 신입 채용 예정 인원인 2350명 중 상당수는 IT, 디지털 관련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전문상사채용을 공고했다. IT 분야(38개), IT 신기술 분야(5개), 디지털(Digital) 분야(6개), IB·기업금융 분야(5개), WM 분야(3개), 기타분야(18개) 등 총 6개의 분야·총 75개 직무로, 총 200명 가량의 전문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이는 신입채용 예정인원(600명)의 33% 이상으로, 2016·2017년에 전체 채용

군에서 전문직·경력직 비율이 10%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리은행도 그동안 전문 계약직으로 IT 인력을 뽑다가 지난해에는 신입 정규직 공채에 별도의 디지털 부문을 신설해 20여명을 선발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연간 채용규모를 지난해 595명에서 올해 750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IT 인력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창구직원·기술전문직 반비례될까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 확대는 금융당국의 은행권을 향한 신규 일자리 창출 압박에 따른 고육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과 6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신규채용과 관련한 윤석현 금감원장의 당부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금년에도 작년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수 년 간 인력·점포 슬림(slim)화와 일자리 창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당국의 채용규모 확대 주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

고 있다. 은행 측 입장에서는 당국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채용규모를 고안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은행권 채용의 상당 부분을 기술전문직 분야가 차지한 데는 비대면 거래 확대에 의한 은행 점포수 감소세도 크게 작용했다.

핀테크 기술의 상용화와 비대면 확대에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야 하는 은행권은 점포 인력과 기술전문인력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2년새 비대면 거래와 창구거래 비율은 각각 88.7~89.9%, 10.1~11.3%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의 영업점포 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국내 은행권의 영업점포 수는 6791곳으로 전년과 비교해 312곳이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디지털 분야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IT 전문가를 비롯한 디지털 인력의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대법 “포괄임금제 급여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포괄임금제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시급으로 환산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차이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노동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 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 씨가 근무한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돼,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노동계는 이를 48시간 노동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0년 9월~2011년 8월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11월에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에는 한달에 110만원, 2011년 7월~8월에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이다. 이는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가량 적은 액수다.

김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절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며 1100만원과 법정이자 추가 지급을 선고했다. 2심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범중 기자 joker@

# 500명이 만들 기내식을 63명이 만들었다

##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전말은?

3만식 필요한데 3천식 만드는  
소기업과의 계약이 문제 시초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1일 부터 발생한 기내식 공급 차질 문제와 함께 기내식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 측은 기내식 공급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다.

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3일에도 30편의 ‘노밀(no meal·기내식 부재)’이 발생했다. 현재 장거리 노선의 경우 샤프도앤코의 기내식을 그대로 공급하고 있지만 단거리 노선은 브리또와 핫도그 등의 간편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전체 항공 80편 중 51편이 지연 출발했고, 2일에는 전체 75편 중 10편이 늦게 출발했다. 기내식



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운항정보 안내 전광판에 ‘기내식 대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2편에 대한 지연 안내메시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 실리지 않은 ‘노밀’ 운항은 1일 36편, 2일 28편에 달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자사 항공기의 기내식 수요와 맞지 않은 소규모 업체와 계약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루 2만5000식의 기내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500명 규모의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샤프도앤코는 총 6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한 공급업체 샤프도앤코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신규업체로 하루 3000식의 기내식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여름휴가 성수기에 제공하는 기내식은 하루 2만5000~3만식에 이른다. 샤프도앤코로서는 계약 후 납품하기로 한 첫 날 이런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 네이버 “4시간 분량 음성 있으면 목소리 합성 가능”

한익상 네이버음성인식 기술리더  
“화자인식, 구글은 40시간 필요”

네이버 음성인식이 ‘화자인식’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한익상 네이버 음성인식 기술리더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D2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열린 기술 포럼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화자인식에 대해 진보를 보인 곳이 없다”며 “네이버 음성인식이 다음으로 할 일은 화자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자인식은 누가 말하는지 혹은 등록된 사용자가 말했는지 인식하는 기술이다.



한익상 네이버 음성인식 기술 리더.

한 리더는 이와 관련해 “라인의 메시지를 읽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아버지가 “메시지 읽어줘”라고 말

하면 다른 가족의 메시지가 아닌 화자인 아버지에게 온 메시지를 읽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화자인식이 구현되면 말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개인별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대화가 지속되도록 해 친구와 대화하듯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용자가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만 하고 끝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또 네이버는 자사의 지식 공유 플랫폼 지식iN을 활용해 음성 인식을 더욱 똑똑

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용자가 “아랫배가 아픈데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지식인 답변을 찾아 읽어주는 방식이다.

강인호 언어처리(자연어처리) 기술 리더는 “2500만건의 지식인 문서로부터 사용자의 언어 표현 행동을 습득하고 동의어, 오타교정 등 다양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분석 모델 개발했다”고 말했다.

기계가 특정한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 낼 수 있는 음성합성에 필요한 음성 녹음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김재민 음성합성 기술 리더는 “보통은 최소 40시간 분량의 음성이 있어야 음성합성 서비스가 가능하고 최대 100시간까지도 녹음하는데 네이버는 이를 4시간으로 줄였다”며 “서비스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주서윤 기자 yuni2514@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최고... 64%↑ 157억弗

〈상반기〉

산업부, 상반기 역대최고 실적 EU서 106% 증가한 46억弗 기록 제조업 72억弗·서비스업 74억弗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간 외국인투자액이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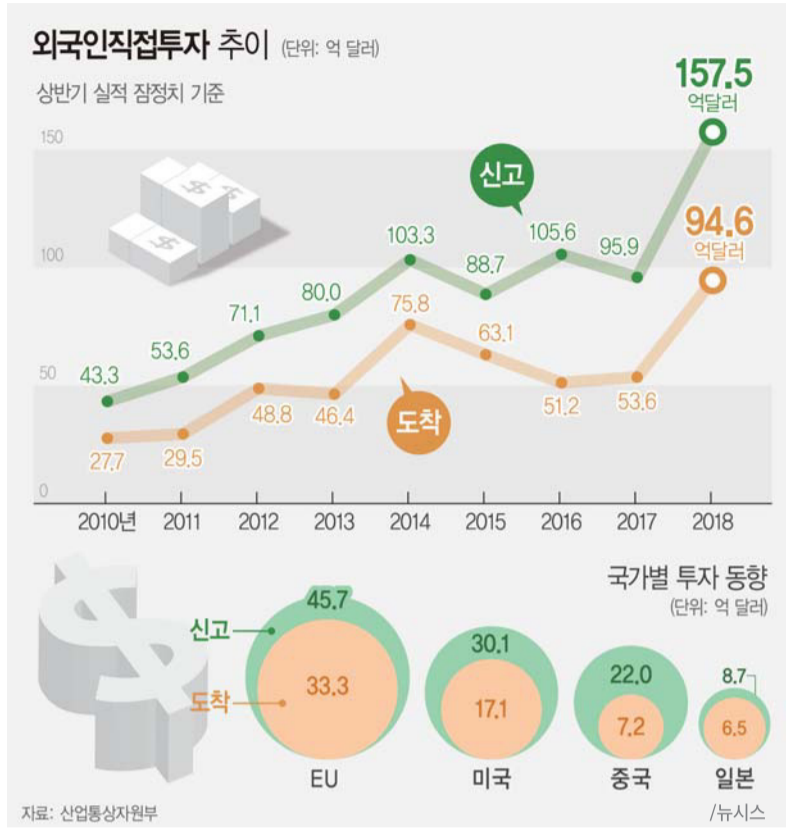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57억 5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64.2%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며 이미 작년 1~3분기 실적인 135억 9000만 달러를 추월한 액수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76.4% 증가한 9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작년 대비 106.3% 증가한 45억7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96.0%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였다.

화학공업·자동차부품 투자가 계속되고 도·소매업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대형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지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미국은 신고 기준으로 작년 대비 23.2% 증가한 30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163.0% 증가한 17억1000만 달러



였다. 미국 투자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신고 기준으로 360.0% 증가한 22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 558.8% 증가한 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발 FDI는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 한국 고급 소비재에 대한 투자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투자가 8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 투자가 확장됐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6.5% 증가한 8억7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12.4% 증가한 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소재·장비 투자와 소비재·금융 분야 등의 투자가 증가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합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작년 대비 155.0% 증가한 72억 1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및 전문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모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작년 대비 25.3% 증가한 83억7000만 달러였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는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공장 증설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28억3000만 달러(62.7% 증가)를 달성했다.

또한 M&A형 투자는 대형 인수합병과 지분투자 증가로 작년보다 71.2% 많은 2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 경제협력 확대, 수출증가세 등이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K-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덕계이호텔에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K-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이번 스마트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요 공무원들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스마트팜 분야 협력 사업 확대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개최하게 됐다.

포럼에서는 필리핀 농업부 엠마누엘 피놀 장관의 '아시아 지역 농가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망과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 스마트팜 정책 및 한국 스마트팜 기술 및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기업 간 1:1 상담회를 통해 신규 국제 협력 사업과 국내 농기업·농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용노동부

4차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 12개 기관·20개 과정 선정

고용노동부는 4일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12개 훈련기관의 20개 훈련과정을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신기술·고숙련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월 서울대, 고려대 등 14개 훈련기관을 1차로 선정해 60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서울대, 한양대, 수원대, 멀티캠퍼스 등이며 빅데이터 등 6개 분야, 20개 훈련과정(501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문화체육부

책 구입비 등 추가소득공제

이달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시장창출 지원 나선다

산업-복지부, 바이오헬스 회의

의료기기·R&D 통합, 육성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4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과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란 기존 의료기기에

인공지능(AI)기술, 로봇기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로 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헬스기기 등이 포함된다.

이날 산업부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시장창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지원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지원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0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 장관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

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등 시장진출 관련 이슈를 먼저 검토·해결한 후 개발을 시작하는 '선 이슈검토·해결-후 개발추진' 방식으로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해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길찾기 등 공간정보 사업에 3천억 투입

국토부, 총 771개 사업 확정

올해 공간정보 사업 육성에 3031억원이 투입된다.

공간정보는 길 찾기, 교통 이용, 가상 현실 게임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융복합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가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의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다.

올해는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10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사업수는

49건 늘었다.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를 도엽(전체 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 단위로 2년마다 갱신·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 이뤄진다.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도 높여 나간다.

또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수신된 위성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올해 안에 끝낸다.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도 올 하반기 착공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함께 만들어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시민들이 안전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적은 안전모 화분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근로자, 사업주, 국민 모두의 안전문화 형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주간 행사에서 박두용 이사장(가운데)과 시민들이 안전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적은 안전모 화분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근로자, 사업주, 국민 모두의 안전문화 형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 광주, '일하는 청년' 저축 돕는다

‘단기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 모집  
만 19세 이상·소득 167만원 이하  
16일부터 30일까지 시청서 접수

광주광역시시는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 청년의 채무를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의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비상금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 원을 더해 200만원의 저축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소액대출에서 시작돼 악성화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청년이 2명 중 1명이었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여유돈이 전혀 없다는 청년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청년비상금통장’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과 구분해 근로빈곤 청년에게



지원된다.

광주지역 20대까지의 청년 근로자 75%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저소득에 따른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비상금통장’ 참여대상은 광주에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청년이고, 세전 근로소득이 60만2000원 이상 167만2105원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시청 1층 민원실 내 ‘열린소통창구’를 직접 방문해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며 청년들이 이용하기 쉽게 토·일요일도 접수

를 받는다. 최종선정자는 오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며, 경제와 금융교육, 참여자간 소모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시 청년정책과장은 “100만원, 200만원의 여유돈이 없어 빚을 지는 청년들이 많다”며 “작지만 저축 성공의 성취감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형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전경.

## 장성군 “스마트폰 대신 엄마 손잡고 놀자”

장성군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캠프를 진행한다.

장성군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년 스마트가족치유캠프’ 공모사업에서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선정돼, 이에 참여할 청소년 가족을 모집 중이라고 4일 밝혔다.

‘2018년 스마트가족치유캠프’는 스마트폰 이용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단 상담과 부모교육, 지역별 특색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가족간의 대화 방법을 알려주는 캠프다.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인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초등학교4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둔 장성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과 부모 1인이 함

께 참여해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약 15%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조절을 어려움을 겪는 등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키워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선착순으로 25가족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가족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1-393-1388)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장성=봉태형 기자

# “세계인의 수영축제, 성공적으로 열리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중국·일본 예술단 초청 공연 열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공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중국 취안저우 고갑희극단과 일본 요코하마 예술단이 6일(오후 1시)과 7일(오후 7시) 각각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5·18민주광장에서 희극과 댄스 무대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무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

취안저우시 고갑희극단은 중국의 전



통극을 선보인다.고갑희극단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어릿광대들이 인생의 갖가지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내용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광주 공연에서는 ‘정산왕 타난가’와 ‘순성’ 2개 작품을 연기한다.

‘정산왕 타난가’는 송나라때 조정의 명신이었던 문관인 방가와 무관 호가의 갈등을 해학으로 풀어냈으며 ‘순성’은 북송시기 말단 관리가 결혼식장에 온 황제 신하와 친척을 상대로 무모하게 지혜와 용기를 겨루는 과정을 통해 웃음을 주는 이야기이다.

일본 요코하마 예술단은 전국 학생댄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성그룹 ‘광파르’와 일본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터미널’이 무대에 오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5555knj@

## 광주 동구 범죄예방 ‘아동 안전지도’ 제작·배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한초등학교 주변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지도는 전문 강사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책임교사, 지한초등학교 4학년 23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관공서, 공터 등 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을 조사하고 지도에 표시해 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전지도는 홍보용 공책으로 제작해 전 교생에게 배부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

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일에는 효과적인 후속 교육을 위해 광주시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지한초등학교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활용한 성폭력 예방 인형극 ‘늑대를 누가 잡았을까’를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 안전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주변의 위험요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형 기자

## 민선7기 전남 조직개편

### 일자리본부·인구정책관 등 신설

전라남도가 김영록 도지사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등 민선 7기 공약 동력 확보와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민선 7기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먼저 도는 2실 7국 1본부 체제에서 임시 조직인 일자리 정책실을 일자리 정책본부로 신설해 2실 7국 2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일자리정책본부는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과 청년 실업해소 대책, 국내·외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국 이하 4급 조직인 7관 7담당관 36과에서 7관 4담당관 40과 체제로 개편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문제 극복, 도내 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인구 청년 정책관’과 ‘섬 해양 정책관’을 각각 신설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김 지사의 공약인 10만 인재키우기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해 ‘희망 인재 육성 과’와 ‘사회적 경제과’가 새로 생겼다.

김 지사의 도민 우선주의 실천에 따라 다소 어려운 국 명칭인 경제과학국은 ‘경제 에너지국’으로 ‘농림축산식품국’은 ‘농축산식품국’으로 ‘건설도시국’도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도는 입법 예고한 민선 7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어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과 행정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초 관련 조례가 공포된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본부장을 선임본 부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업무를 종합하고 컨트롤하도록 해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경균 의장 김경열 부의장

## 보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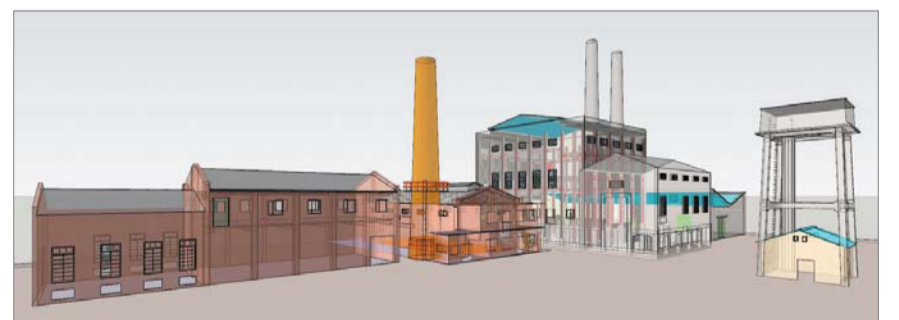
### 신경균 의장·김경열 부의장

제8대 보성군의회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앞으로 4년 간 새로운 의정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개원에 앞서 지난 2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에는 신경균 의원(사진 왼쪽), 부의장에 김경열 의원(사진 오른쪽)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경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8대 의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걸맞게 상생적인 의회, 창의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구례=문병환기자



디지털 아카이브로 작업을 한 일산방직

/뉴스

## 광주시 근대건축물 3D모델링 등 기록 보존

광주시는 4일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사업을 도면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3D모델링, VR영상, 3D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평면적인 기록보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변환작업을 통해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를 대중화하고 도시재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상 건물의 실측도면 제작과 3D영상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지난 1935년에 지어진 일산방직 내 발전소, 보일러실 1·2, 고가수조 등이다.

광주산업화의 시발점이 된 근대산업유산 일산방직 부지(4만3000여 평)에는 화력발전소와 집진시설, 고가수조(물탱크)와 저수지, 목조 공장건물 등 80년 이상된 건물과 구조물들이 산재해 있다. 또 1946년 직원들이 설치한 해방기념 국기 게양대 등 광주근·현대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광주=김남중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 디에스피원, 美 전기차 충전기 1위 기업과 합작법인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 공략

블링크, 미국 시장 표준 선점 기업  
충전스테이션사업 영토 본격 확장  
클라우드·충전시스템 시너지 기대



블링크 차장의 마이클 파카스(왼쪽) 이사회 의장과 디에스피원 홍동호 대표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전문기업 디에스피원이 미국 전기차(EV)용 충전기 시장점유율 1위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올해부터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디에스피원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디에스피원은 4일 미국의 블링크 차장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피원이 지분의 90%, 블링크가 10%를 투자해 설립하는 합작법인은 앞으로 미국에서 디에스피원의 EV 스테이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디에스피원이 제조한 EV용 전기충전기와 함께 블링크의 충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블링크가 보유한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 기술은 디에스피원이 빅데이터 분야로 사업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디에스피원은 EV 충전스테이션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에스피원은 또 협력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향후 글로벌 시장의 EV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동호 디에스피원 대표는 “블링크는 미국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한 EV 충전기와 네트워크서비스 선두주자”라며 “블링크의 첨단 클라우드 기술과 디에스피원의 충전시스템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블링크는 나스닥 상장사로 미국내 EV 충전 장비 및 서비스 분야 1위 기업이다. 미국 전역에 1만4000개 이상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블링크는 충전기는 물론 충전 스테이션의 모든 데이터를 운영, 관리, 추적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블링크 네트워크(Blink Network)’를 공급하고 있다.

블링크는 최근 아마존의 자회사인 미국 최대 유기농 식료품 체인 홀푸드와 제휴해 홀푸드 매장에 충전소를 공급하는 등 미국내 공항, 대학교, 쇼핑몰, 주차장, 학교 등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늘리고 있다.

양사는 이번 JV 계약에 앞서 지난달 7일 의향서(LOI)를 교환했으며 그 동안 상대 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사업을 준비해왔다.

합작법인을 통해 블링크는 디에스피원의 제조 지원을 받아 한국과 동남아시아에 표준화된 EV 충전기와 충전 서비스를 도입하고, 디에스피원은 블링크의 충전 스테이션 및 EV 충전기 운용 노하우와 서비스 마케팅을 지원받아 충전스테이션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개인용 이동수단(PM)의 에너지 충전 시스템 표준 모델 개발을 위



LG하우시스는 4일 울산 울주군 LG하우시스 울산공장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그린누리’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영현 고용촉진이사, LG하우시스 울산공장 주재임원 우명수 상무, LG하우시스 장흥철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 LG하우시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장애인표준사업장 ‘그린누리’ 출범

LG하우시스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LG하우시스는 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LG하우시스 울산공장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그린누리’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G하우시스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최종 설립 인증을 받아 이날 출

범한 그린누리는 총 51명의 근로자 중 18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이 가운데 13명은 중증장애인이다. 그린누리는 앞으로 LG하우시스의 울산공장과 옥산공장에서의 실내 환경미화, 카페 및 매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겐 폭넓은 장애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리아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온라인 협업’ 전상거래 통합솔루션메이

코리아센터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은 ▲온라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기업 지원 ▲장애인 가족 및 예비창업자 육성 ▲온라인 창업을 통한 해외(중국·일본·미국 등) 판로개척 ▲쇼핑몰 매출 향상 현장 클리닉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코리아센터 김영철 부사장(왼쪽)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김수환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아센터

## 식물성 유산균으로 위·장 건강을 동시에

CJ제일제당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

CJ제일제당은 장 건강과 위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물성 유산균 제품인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는 국내 기술로 개발돼 특허 받은 식물성 유산균 ‘CJLP243’과 위 건강 기능성이 있는 ‘감초추출물’ 성분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장 건강은 물론이고,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인 ‘CJLP243’은 CJ제일제당의 발효식품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치에서 추출해, 생존력과 부착력이 강한 식물성 유산균이다. 식약처로부터 ‘장 속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은 늘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배변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으로 인증 받은 소재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의 또 다른 중요 성분인 ‘감초추출물’은 복부팽만감, 역류, 속쓰림 등 기능성 소화장애 10



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확인된 식약처 인증 소재다. 감초추출물 인체시험을 통해 헬리코박터균 보균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캡슐 하나로 위와 장의 건강 밸런스를 한번에 챙길 수 있는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를 앞세워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 많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주재한 CJ제일제당 건강마케팅 담당자는 “40세 이상 한국인 60%가 헬리코박터균 보균자로 조사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온 가족이 365일 위 건강과 장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 제품이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휴가지 추억, 흉터로 기억하지 마세요

휴가철 흉터관리 팁

환부 청결 유지·균 노출 방지 중요  
습윤밴드·흉터치료제 이용해 관리

비타민C 함유된 실리콘 겔 성분  
착색 억제하고 임신부·아동 무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레저 액티비티를 즐기고자 계획했다면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필수다.

한 취업전문 업체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5.1%가 휴가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진행한 올해 휴가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괌, 세부, 오키나와 등 레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인기 여행지로 꼽혔다.

액티비티 등 평소보다 신체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에는 안전사고 역시 빈번히 일어난다. 큰 사고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넘어지거나 부딪혀 생기는 작은 사고에도 평소보다 많은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흉터예방은 관리부터 철저히  
휴가지에서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은 응급 처치, 아무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리로 인해 흉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응급약도 제대로 찾기 어려운 휴가지에서는 상처가 생겼을 때 환부의 청결을 유지하고 균 노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부를 씻을 때에는 생리식염수 등 정제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흐르는 물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깨끗이 씻어낸 환부가 건조되면 습윤밴드를 붙여 습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면 흉터치료제로 흉터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어른과 달리 피부가 연약한 어린 자녀가 다쳤을 경우엔 올바른 흉터 관리법 숙지는 물론 흉터치료제 선택 또한 신중해야 한다.

흉터치료제를 고를 때에는 실리콘 겔 성분의 흉터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리콘 겔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어린 아이는 물론 임신부 및 수유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신 실리콘 성분인 CPX(씨클로펜타실록산)은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줄여 흉터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증식을 억제한다. 꾸준히 사용할 경우 흉

터를 평평하고 부드럽게 개선하는 1차적인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

‘내약사용설명서’의 저자인 이지현 약사는 “성장기 아이들은 피부 재생능력이 뛰어나 어른에 비해 상처가 빨리 아무는 반면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흉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딱지가 떨어진 직후부터, 수술을 했을 경우엔 실밥 제거 후 7~10일 이후부터 흉터치료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착색흉터 남기지 않으려면  
상처가 아물고 난 직후부터 성숙기(6개월에서 길게는 1년)를 지나지 않은 예민한 상태의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쉽게 착색될 수 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가 상처로 민감해진 피부에 과다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아문 상처 주위가 거뭇하게 변하게 되는 착색 흉터까지 관리하려면 비타민 C가 함유된 실리콘 겔 성분의 흉터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C 성분은 피부색을 변하게 하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없게 해 준다.

/김민서 기자



# “화학물질 NO!”... 내 아이 위한 ‘VIB족’·‘노케미맘’ 잡아라

(Very Important Baby)

유모차·기저귀·침구류 등 관련업계  
친환경 소재 등 맞춤형 제품 잇따라

유아용품 업계에 ‘노케미맘’이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명의 자녀만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VIB(Ver y Important Baby) 족이 증가하면서 ‘노케미’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아용품 업계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제품 공정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등 ‘노케미맘’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모차·카시트... 아이 생활공간 안전하게  
신생아의 경우, 각질층이 성인 대비 20~30% 얇고, 화학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뇌장벽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피부 접촉 등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모차나 카시트의 경우 아이가 먹고, 마시고, 잠을 청하는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구입 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 특히 견고함, 물리적 안전성 만큼이나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은 화학적 안정성이다. 유모차와 카시트가 외부 충격



베이비앙의 오가닉 천기저귀(왼쪽)와 안국건강의 안심 키즈 멀티비타민.



/베이비앙·안국건강

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몸을 감싸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브랜드 뉴나의 프리미엄 디럭스 유모차 ‘믹스’, 360도 회전형 카시트 ‘레블플러스’의 경우, 아이의 피부에 닿는 소재뿐만 아니라 제작 공정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아 화학적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다. 엘레니어의 ‘뉴 세스토라이트’는 오코텍스사(OEKO-TEX) 인증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다.

뉴나 관계자는 4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용품 속 유해 물질 검출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유아용품을 찾는 고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유모차나 카시트를 선

택할 때에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물리적 안전성은 물론 소재와 성분으로 인한 화학적 안전성까지 꼼꼼히 비교해 보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천기저귀·세안제, 자극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피부는 민감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는 기저귀나 피부에 직접 닿는 세안제 등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생리대 파동 이후 ‘천기저귀’가 화두가 됐다. 14개월 자녀를 둔 송모(30) 씨는 최근 일회용 기저귀를 천기저귀로 대체했다. 그는 “아무래도 아이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인데다, 생리대 파동으로 인해 기저귀도 함부로 믿고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

## ‘노케미맘’이란?

거부(NO)와 화학물질(Cheмиcal)의 합성어로, 유아용품 구매 시 친환경 소재,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만을 선택하는 엄마를 지칭한다.

었다”면서 “천기저귀라면 조금 안심할 수 있겠다 생각에 바꿨다”고 말했다.

베이비앙, 밤부베베 등에서 선보이는 천기저귀가 대표적이다. 베이비앙의 ‘오가닉 천기저귀’의 경우 3년 이상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유기농 거름을 사용해 재배된 오가닉 면을 사용한 제품이다. 일반면에 비해 흡수력이 뛰어나며 터치감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향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아 아기의 연약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부드럽다.

◆먹이고 재우고...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영유아 시기에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 따라서 침구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다. 직접 입을 통해 들어가는 식품에도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검증된 화학성분조차 우려하며

화학물질을 거부하는 엄마들도 늘고 있어 식품업계도 ‘맘심’ 잡기에 분주하다.

아이들이 먹는 영양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이다. 아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미량의 첨가물에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더욱 세심히 살펴봐야만 한다.

어린이 비타민 구매 시에는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통해 식물 유래 성분인지, 화학부형제가 사용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뉴나 믹스 유모차./뉴나

## “홈쇼핑에서 티켓 사고 뮤지컬 보러가자”

CJ ENM 오쇼핑 ‘컬처프로젝트’  
뮤지컬 ‘명성황후’ 예매권 판매

CJ오쇼핑이 CJ ENM 출범 후 뮤지컬 ‘명성황후’를 시작으로 ‘컬처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6일 새벽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컬처프로젝트 일환으로 뮤지컬 ‘명성황후’ 시즌 마지막 공연인 성남아트센터 공연 예매권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CJ오쇼핑 컬처프로젝트는 CJ ENM 출범 이후 처음 선보이는 문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다.

미디어·문화 콘텐츠 강자인 CJ E&M과 커머스 강자인 CJ오쇼핑의 합병으로 탄생한 CJ ENM은 출발부터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CJ오쇼핑은 그동안 예능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TV홈쇼핑 트렌드를 만들어왔던 만큼 뮤지컬 ‘명성황후’를 시작으로 컬처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중에는 VIP석, R석 예매권을



40% 할인된 단독 특가로 판매하며 티켓 2매 구입 시 1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북을 추가로 증정한다. 메인 진행은 1997년 명성황후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배우로 참여한 인연으로 류상 쇼호스트가 맡는다. 이와 더불어 김선희 쇼호스트도 함께 활약할 예정이다.

컬처프로젝트의 포문을 여는 뮤지컬 ‘명성황후’는 조선 제 26대 왕 고종의

비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대형 창작 뮤지컬이다. 19세기 말 격변의 시대에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 정면으로 맞서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 김소현, 손준호, 오종혁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의 열연으로 다시 한 번 한국 창작 뮤지컬의 신화를 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방송에서는 뮤지컬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임정모를 비롯한 30명의 출연배우가 마치 무대를 홈쇼핑 세트장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다. 배우가 직접 작품 소개를 들려줄 뿐 아니라 뮤지컬 쇼케이스 앙상블 무대를 직접 라이브로 선보여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뮤지컬 흥행 보증수표인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준비한 ‘매진 공약’도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이들은 방송에서 티켓 매진 시 둘 만의 화음이 어우러진 ‘향수’ ‘사랑의 찬가’ 등과 같은 대중음악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1인가구 늘어 식자재 주방세제 매출 ‘쑥쑥’

애경산업 ‘부라보’·‘애경락스’ 인기

애경산업의 식자재 전문 제품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2년 출시된 식자재 전문 주방세제 ‘부라보’와 올해 초 새롭게 출시한 식자재 전문 ‘애경락스’가 이례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부라보’는 지난해 기준, 연평균 성장률 30%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내부집계 결과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 ‘애경락스’는 지난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월평균 성장률 35%를 달성하고 있다.

부라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방세제이자 최장수 주방세제 ‘트리오’의 50년 기술력을 그대로 담아낸 식자재 전문 주방세제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식기와 조리기구를 세척하는데 사용한다.

식자재 전문 주방세제가 정제기에 빠진 주방세제 시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주방세제 전체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340억 원(닐슨 리테일 인덱스 기준, 베이킹소다 원물 포함)이다.



애경산업 ‘부라보’, ‘애경락스’./애경산업

2015년 주방세제 시장규모는 1420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역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애경산업에 따르면 식자재 전문 주방세제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

식자재 전문 주방세제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와 식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1인 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561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또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108조 원으로 2014년 외식산업 규모 84조 원 대비 28% 늘어났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용 주방세제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주방세제 전체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서 기자

## 롯데칠성음료, 오렌지를 그대로 담은 과즙탄산 ‘오랑지나’

롯데칠성음료가 프랑스의 인기 과즙탄산음료 ‘오랑지나(Orangina)’ 420ml (사진) 페트병을 출시했다.

오랑지나는 지난 1936년 스페인 출신의 약사인 트리코 박사가 스페인어로 ‘작은 오렌지’라는 의미의 ‘나랑지나(Naranjina)’라는 오렌지 주스 농축액을 개발한 것이 시초다. 이후 1951년 ‘장 클로드 베통’이 ‘CFPO(Campagne Francaise des Produits Orangina)’라는 회사를 세우고 오렌지 펄프에 탄산을 더해 오랑지나라는 새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오렌지를 그대로 담아낸 맛과 향에 오렌지 껍질의 질감을 살린 독특한 패키지가,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베르나르 빌모(Bernard Villemot)’의 독특한 광고 이미지가 더해져 프랑스의 대표 과즙탄산음료로 성장했다. 특히 광고로 활용된 푸른색 배경에 오렌지 껍질이 휘감아 도는 파란색 이미지는 오랑지나의 맛과 향을 눈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오랑지나라 대표인 브랜딩 로고로 적용됐다.

오랑지나는 오렌지, 레몬, 자몽, 감귤 등 시트러스류 과즙(12% 함유)에 부드러운 탄산이 더해져 상큼한 청량감을 즐길 수 있으며, 오렌지 펄프와 껍질 추출물이 들어있어 오렌지를 그대로 베어먹는 듯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오랑지나는 프랑스 1등 오렌지 과즙탄산음료이자 전 세계 약 70여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오렌지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프리미엄 과즙탄산음료를 찾는 20~30대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KGC인삼공사, 철인3종 국내 ‘홍삼톤골드’ 후원

KGC인삼공사가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하는 ‘철인3종 경기’ 및 철인3종 국가대표팀에 ‘홍삼톤골드’ (사진)를 후원한다고 4일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철인3종 대회(서울, 통영) 참가자 전원에게 ‘홍삼톤골드’ 샘플팩을 증정하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시음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오는 8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이언맨 70.3 제주 대회’도 후원한다. 또한, ‘홍삼톤골드’는 경기 우승자를 위한 시상품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철인3종 국가대표팀 전원에게도 제품이 지원된다.



‘철인3종 경기’ 라고 불리는 ‘트라이에슬론’은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가지 종목

을 연이어 진행하는 스포츠로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0년대 처음 도입돼 현재 약 3만 여명 이상의 동호인이 활동하는 생활체육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 여주, 삼척, 통영 등 총 8곳에서 대회가 열린다. /신원선 기자

# 영화 앤트맨에 '현대차 3인방' 출격

현대차, 벨로스터·코나·싼타페 제공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마블(MARVEL)'과 손잡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벨로스터, 코나, 싼타페가 전 세계에서 개봉하는 '앤트맨과 와스프'에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차는 마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앤트맨과 와스프'의 촬영에 벨로스터와 싼타페, 코나를 제공했다. 마블의 대표 히어로 영화 '앤트맨'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앤트맨과 와스프'는 앤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의 예측불허 미션과 활약을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스크린 속에 뛰어난 벨로스터, 코나, 싼타페 등 현대차 3인방은 영화 주요 장면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보라색 램프와 화려한 노란색 불꽃 장식의 '벨로스터 앤트맨'



앤트맨-현대차 콜라보레이션 포스터.

'카'는 영화 배경인 샌프란시스코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골목을 질주하며 현란한 도심 추격신을 펼친다. 특히 사물의 크기를 변형시키는 능력으로

'벨로스터 앤트맨카'의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들을 따돌리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보여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가 대표사회공헌활동인 '초롱이 눈 건강 교실'을 실시한다. /LG디스플레이

## LG디스플레이 초등생 '초롱이 눈 건강교실' 실시

LG디스플레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롱이 눈 건강 교실'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교육하는 LG디스플레이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매년 교육 횟수를 늘리고 있다.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개 초등학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작년에 비해 25% 확대한 규모다. 올해까지 LG디스플레이 눈 건강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4만여명에 이른다.

눈 건강 교실은 강의식 교육이 아닌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뮤지컬 형태로 진행한다. LG디스플레이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눈 전문가와 뮤지컬 극단과 협력해 교육을 설계했다. 학교나 학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관리 방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동요 등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 요소와 접목시켜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장 부사장은 "시각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고자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ujin6326@



중소벤처기업부와 르노삼성자동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4일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 기·금' 조성식을 가졌다. (왼쪽부터)김형호 대중소재단 사무총장, 홍중학 중기부 장관,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車부품업체 투자기금 150억 조성 협약

중기벤처부-르노삼성

중소벤처기업부와 르노삼성자동차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르노삼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총 150억원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 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금의 절반은 르노삼성이,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낸다.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 기·금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조성, 지난달 말까지 65개사에 걸쳐 총 6200억원이 조성됐다. 르노삼성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유일하게 기금 조성에 참여했다.

이번에 조성된 150억원은 르노삼성이 국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과 협업해 초소형 전기차 및 차세대 파워트레인 등 미래차 핵심부품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7월 5일 (음 5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60년생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 72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한 날. 84년생 뱀띠, 원숭이띠와의 거래가 순조롭다.
- 소**  49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자. 61년생 어린 사람과 닮아 생기니 주의. 73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없다. 85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 호랑이**  50년생 마음이 통하는 벗과 즐거운 만남을 갖는다. 6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4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6년생 가족 간에 공과 사를 다룰 일이 생긴다.
- 토끼**  5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둬라. 63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된다. 75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87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 참고 기다리자.
- 원숭이**  5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따라서 싱숭생숭. 64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하자. 76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88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마음만 불탄.
- 뱀**  53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 65년생 지치고 힘든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자. 77년생 하나를 뿌렸는데 열 개로 돌아온다. 89년생 기회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 말**  54년생 사람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66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도 힘드니 재물은 들어온다. 78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날이다. 90년생 물 흐르는 대로 버려두는 것도 한 방법.
- 양**  55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67년생 태양은 항상 하늘에 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79년생 병이 왔으나 곧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91년생 가족의 협조로 힘든 일이 해결된다.
- 원숭이**  56년생 다툼이 생기니 쉬운 날이니 주의. 68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80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주는 날. 92년생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이는 날이 되겠다.
- 닭**  57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9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 81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많이 모이는 법. 93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실수가 없다.
- 개**  58년생 헛된 꿈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70년생 시시비비 가라다가 내 실수도 알려지게 되니 나서지 마라. 82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94년생 별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 돼지**  59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7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하라. 8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해야 하는 날. 95년생 고인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 김상회의 四季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사주 탓

언제부터인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묘하다. 남이 어떤 행위를 하면 쉽게 흉보면서 내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사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일이 꼬이면 사주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속은 편하다. 일이 잘 안 되는 건 사주 탓이니 자기의 책임도 털어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안이 된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벌인 사람이 있다. 때가 아니니 운세가 열리는 시기까지 일 년만 기다리라고 했다. 말리는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매출이 잘 나왔다. 그것 보라며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좋다고 한바탕 자랑을 하고 갔다. 문제는 그 뒤였다. 녁 달이 지나기 전에 매출이 꺾였고 자금운용이 곤란해졌다. 결국 일 년을 버티지 못했다. 문을 닫은 뒤에는 자기 능력을 사주의 재물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며 사주 탓을 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대운이 그런 사주의 기운을 막고 있었다. 이번 운은 일 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을 것이었다. 새로 시작되는 대운은 재물이 조금씩 풀려오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시간이 더 지나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던 것이다. 다행히 이제는 좋은 대운의 구간으로 들어섰으니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면 능력과 대운이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세상일의 성패는 내 능력 덕분에 잘 될 수도 있고 사주 탓에 안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일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얽히고설켜서 서로 좋고 나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 모든 일이 사주 탓이라면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사업은 망하고 승진은 탈락하고 시험 보면 떨어지려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그러나 실재는 다르다. 사주가 안 좋아도 사업이 쪽쪽 뻗어나가고 시험을 보면 항상 합격하고 돈이 풀려오는 사람도 많다. 나를 둘러싼 일들의 많은 부분은 내가 무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일이 안 풀린다고 사주 탓만 하는 건 화풀이 밖에 안 된다. 화풀이로 잠시 시원해지기는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사주로 앞길을 내다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2 | 9 |   |   |   |   |   |   |   |
|   |   |   | 8 |   |   | 1 | 7 |   |
|   |   | 8 |   | 6 |   |   |   | 9 |
| 8 | 6 | 1 |   |   |   |   |   | 9 |
| 2 | 5 | 9 |   | 6 | 8 | 3 |   |   |
| 7 |   |   |   | 3 | 2 | 6 |   |   |
| 5 |   |   | 9 |   | 4 |   |   |   |
| 6 | 4 |   |   | 1 |   |   |   |   |
|   |   |   |   |   |   |   | 2 | 7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6 |   | 8 | 5 |   |
|   |   |   |  |   |   | 4 | 2 | 7 |
|   | 2 |   |  |   |   | 7 |   |   |
| 5 |   |   |  |   | 2 |   | 4 | 3 |
|   | 8 |   |  | 1 | 3 |   |   | 6 |
|   | 6 | 5 |  |   |   |   | 1 | 2 |
|   |   | 4 |  | 1 | 3 | 8 | 7 |   |
|   |   | 8 |  | 2 |   | 3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2 | 9 | 8 | 6 | 7 | 5 | 4 | 3 | 1 |
| 8 | 6 | 1 | 7 | 2 | 3 | 4 | 5 | 9 |
| 9 | 1 | 7 | 8 | 6 | 4 | 2 | 3 | 5 |
| 5 | 9 | 2 | 8 | 7 | 1 | 6 | 4 | 3 |
| 1 | 8 | 9 | 4 | 6 | 5 | 2 | 7 | 3 |
| 7 | 6 | 4 | 2 | 5 | 1 | 9 | 8 | 3 |
| 6 | 5 | 2 | 9 | 7 | 8 | 3 | 1 | 4 |
| 3 | 7 | 1 | 6 | 7 | 8 | 5 | 9 | 2 |
| 8 | 7 | 9 | 5 | 1 | 2 | 6 | 4 | 3 |
| 7 | 5 | 2 | 9 | 7 | 6 | 8 | 1 | 4 |
| 9 | 4 | 8 | 1 | 5 | 7 | 6 | 2 | 3 |
| 3 | 1 | 6 | 7 | 8 | 4 | 5 | 9 | 2 |
| 5 | 9 | 2 | 6 | 1 | 3 | 4 | 8 | 7 |
| 1 | 8 | 9 | 4 | 6 | 5 | 2 | 7 | 3 |
| 6 | 5 | 2 | 9 | 7 | 8 | 3 | 1 | 4 |
| 3 | 7 | 1 | 6 | 7 | 8 | 5 | 9 | 2 |
| 1 | 6 | 5 | 8 | 7 | 9 | 2 | 4 | 3 |
| 8 | 7 | 9 | 5 | 1 | 2 | 6 | 4 | 3 |

문제 제공= 보너스

# 잠뽕 드시겠습니까? 짜장 드시겠습니까?



**진성오** 소장역  
심리카페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시간이 점심이라면 더 좋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여도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중국집 앞에서 서고 이제 잠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을 먹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잠뽕인가 아니면 짜장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 뭘 선택하던 당신은 필자가 만들어 놓은 뒤통에 걸린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필자는 두 부부의 사례를 들면서 프레임이란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하며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지난 내용을 짧게 다시 기억해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목마르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둘간의 관계가 좋을지 혹은 더 나빠질지 ‘이면의 의미’를 남편이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인 자신이 목마른 걸 알리기 위해 의도적이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

자신이 목마른 것을 남편이 목마른 것으로 돌려 표현한 것이든, 아내는 남편에게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은 목이 마르나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앞에서 독자에게 잠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을 먹을 것인지 물었다. 아무엇을 선택했는가? 뭘 선택하던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것은 당신이 중국 음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다른 음식은 가능한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남편이 뭐라고 하던 남편을 소위 말해서 ‘을’의 위치에 두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뭐라고 답하던 남편은 부인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서 질문은 대부분 권력자가 피권력자에게 하게 되어 있다.

설득이나 최면 대화 기법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주제 안에서 생각이 머물게 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대화나 설득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너무 교묘해서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지 당사자도 모르게 작동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프레임이라는 전제 안에서 유지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말한다. “날 사랑하지마...”

이 말의 문자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레임은 무엇인가? “날 사랑해...”라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사랑할 것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마!”이다. 당신은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우선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해야만 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용만큼이나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틀(프레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득찬 물을 들고 부엌에서 걸어나올 때 아이로 하여금 물을 쏟게 하기 위한 프레임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된다. 큰 소리로 “야야! 물 쏟지마라!!!”

/당신의마음연구소장



포스코대우, 印尼 의료봉사활동 진행

포스코대우가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머라우케군 지역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강한국성재단과 함께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나선 국내 및 현지 의료진 20여 명과 포스코대우 파푸아주재 임직원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지역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포스코대우



GS건설, 저소득층 청소년 하복지원금 전달

GS건설은 지난 3일 한국구제기아대책기부에서 저소득층 가정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GS건설 임직원이 전승림 기아대책기부회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GS건설

## 갈길 먼 산업안전 보건



**기지수첩**  
최신웅  
(정책사회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달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날 기념식 도중 전국급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 ‘위험성 평가 올바른 실시’

등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모습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산업안전보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매년 약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26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만 3만 6000명에 달했다. 산재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많은 주장과 갈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두 이슈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분명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도 우

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돼야 할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의 김군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지도 벌써 2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2년의 시간만큼 사람들의 기억에도 많이 잊혀졌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김군과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고, 국민들 또한 산재사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grandtrust@metroseoul.co.kr



홈플러스, KS-SQI 평가 3년 연속 1위

홈플러스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 3년 연속 대형할인점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왼쪽)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인증 수여식에서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상한 후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BNK경남은행, 창원 취약계층 위해 선포기 기탁

BNK경남은행은 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의 행복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창원시에 ‘2018 행복한 여름 나기 선포기’를 기탁했다. 황윤철 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은 4일 오전 창원시청을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두번째)에게 ‘2018 행복한 여름 나기 선포기 증서’를 전달했다.

/경남은행

### 인사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서울강남지청장 김명기 △서울남부지청장 강요원 △인천북부지청장 함병호 △양산지청장 김준휘 △구미지청장 이승관 △천안지청장 권호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유재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이창열
- ◆**국토교통부** ◇ 실장급 승진 △항공정책실장 손명수 ◇ 국장급 전보 △철도국장 황성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본원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 김주선 ◇ 전북본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장 김태욱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장 이성호 △구조융복합소재연구센터장 정용채(직무대리)
- ◆**무역보험공사** ◇ 본부장 보임직책 변경 △투자금융본부장 이도열 ◇ 본부장 직무대행 △글로벌영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양규 △리스크채권본부장 직무대행 김석희 ◇ 부서장급 전보 △사회적가치혁신부장 손지모 △운영지원부장 방종열 △심사부장 이은근 △신성장금융부장 장만익 △경기북부지사장 유용중 △부산지사장 이경래 △광주전남지사장 이두원 △파라지사장 박재형

- ◆**서울시교육청** ◇ 지방이사관 승진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 지방부이사관 승진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현 ◇ 지방부이사관 전보 △교육행정국장 장성훈 △총무과장 이연주 △양천도서관장 안은용 ◇ 지방서기관 전보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김중락
- ◆**EY한영** (승진) ◇ 본부장 △품질위험관리본부 이동근 ◇ 파트너 △강석훈 △김기세 △김동길 △김진용 △김철홍 △김희영 △박정익 △심상학 △심창용 △양재호 △오광철 △오재영 △육일진 △이기

- 수 △이근희 △이윤기 △이재훈 △장호열 △정우호 △정일영 △한도현 △홍우철 ◇ 상무 △김선업 △김영진 △김유준 △송용영 △정수환 △최태용 △최주희 (선임) ◇ 원장 △산업연구원 변준영 ◇ 마켓/인더스트리 리더 △김범중 △김영석 △김형민 △박남수 △전상훈 △정인석 △최재원

### 부음

- ▲**홍중대씨 별세**, 홍동호(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홍동진(대동공업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태동(필택 대표)·김정국(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정태수(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씨 장인상 = 4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층 1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2-2258-5940.
- ▲**김중고씨 별세**, 고광봉(교보증권 랩운용부장)씨 장인상 = 3일 오전 0시40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인제도리안 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30분, 033-461-0404.
- ▲**김순예씨 별세**, 임삼현(기업은행 전무이사)·상호·상준씨 모친상, 이만영·이규상·김희태씨 빙모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이대목동병원, 아프리카 말라위대양간호대학장 방문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제신타 모텐지(Jasinth a Mtengezo) 학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했다. 세계질적건강연구 학술대회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제신타 모텐지 학장 일행은 학술대회 기간 중 평소 활발히 교류하고 있던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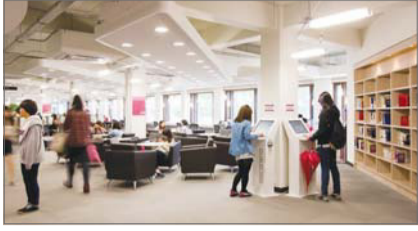
/이대목동병원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 편집국장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김교준          |
| 광고문의     | 02721-9851, 9826     |
| 독자센터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100206           |
|          | 2002년 5월 28일 제 3991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
|          | 2017년 3월 09일 제 0085호 |

대학가 소식



덕성여대 교내 도서관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덕성여자대학교는 교내 도서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실시된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 시범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411개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총 25개 정량지표를 적용해 이뤄졌으며 대학 규모에 따라 그룹별로 총 6개의 우수 대학을 선정했다.

덕성여대 도서관은 수도권 4년제 B그룹(재학생 5000명 이상 1만명 이하) 16개 대학 중 최고점을 받았다.

덕성여대 도서관은 74만여 권의 도서, 4만여 종의 비도서와 전자자료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2010년 리모델링을 거쳤고, 2013년에는 서울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됐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1억 지원 창업아이템 모집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창업지원단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2차 모집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동국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선정된 이후 8년 연속 창업아이템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총 9개 기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가 멘토링, 기업 IR(투자유치), 맞춤형 창업교육 등 다양한 창업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 팀이나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창업선도대학에 동국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산업보안 특성화학과 선정

중앙대(총장 김장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산업보안 특성화학과(학·석사 통합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산업보안 특성화학과 지원사업은 통합적인 보안교육을 통해 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보안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중앙대는 '보안데이터 분석센터(Center for Security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산업별 정보를 수집하고, 입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보안문제 해결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실험실 창업 기반 닦는 5개대의 '무한도전'

송실대

대학원생 창업엔 無 논문 졸업 가능

연세대

상시 멘토링·최대 '30억' 투자 보증

전북대

휴학 '4년' 확대·기술창업학과 개설

한국산업기술대

연구·창업 병행 '스타트업스쿨' 계획

한양대

기숙 창업공간 구축·특화교육 운영



/유통이미지

대학 실험실의 연구 성과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창업인 '실험실 창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송실대는 대학원생이 창업활동을 하면 졸업 논문을 내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한국산업기술대는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하도록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를 만든다. 한양대는 기숙형 창업공간을 만들어 스타 실험실 창업가 육성에 나서기로 했으며, 연세대는 최대 30억 원의 투자를 보증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교원이나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송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가나다 순)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

업과 비교해 평균 고용규모(9.5명)가 3배 가량 높고, 창업 5년 생존율(80%)도 일반 기업(27%)보다 월등히 높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대학의 실험실 보유 기술 역량과 대학별 창업 지원 계획 등을 종합한 결과 선정된 5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약 15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실험실 창업 지원에 나선다.

대학들은 실험실 창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교육과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해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창업을 담당할 학생들의 창업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내 실험실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창업 동아리 운영, 시장탐색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학내 학사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원생이 학위와 진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졸업요건을 보완하고, 교원의 실험실 창업 독려를 위해 업적평가에 창업 실적을 반영하고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만든다.

아울러 기업의 설립과 성장이 쉽도록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실험실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 전용 공간도 조성된다.

대학별 계획을 보면, 송실대는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원의 창업 실적 반영 점수를 기존 20점에서 SCI 논문 게재 수준인 최대 20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원생이 창업 활동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또 창업지원 전용공간인 '스타트업 펌프 벤처 스튜디오(Startup Pump Venture Studio)'를 개관해 창업전담 교원을 상주시켜 상시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실험실 창업 지원 상근 인력인 '창업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채용해 우수기술 보유 실험실 6곳의 사업화를 전담시키고,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실험실 창업 과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실험실 창업 기업을 대학이 추천하면 심사를 통해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 '캠퍼스 스타트업(Campus Start-Up)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전북대는 창업 휴학제를 기존 1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과정에 기술창업학과(가칭)를 개설한다. 또 전북지역 내 5개 창업보육센터와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험실 기술별 특화된 창업보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교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속하지 않더라도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한다. 또 교수의 지도학생이 창업을 하고, 본교 학생을 고용할 경우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학원인 '스타트업스쿨'을 2020년까지 개설해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한양대는 실험실 창업팀이나 대학원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30명 규모의 기숙형 창업공간인 '247 스타트업 풀'을 구축하고, 전용 기숙사 제공, 방별 전담멘토 배정을 통한 사업화 밀착마크, 해당 학생 대상 별도의 데모데이(demoday) 개최, 창업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타 실험실 창업가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교내 실험실 연구 성과와 창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기술지주회사와 창업지원단의 사업성 검증 심사를 통해 기술 성숙도별 창업·사업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랩 패스트 M&A 트랙(LAB Fast M&A Track)'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과 대학원생 예비창업팀 발굴 및 시장탐색형 창업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 학사·인사 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관련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이 혁신 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4차산업혁명 바람, 채용시장에도 분다

## AI·빅데이터 분야 채용 '40%' 급증

IT·인터넷 분야 증가세보다 높아

지난해 하반기 비 100% 급성장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의 채용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의 영향이 채용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이인 지난해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신규 직종 분류로 생성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채용공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이 분야 공고는 월평균 9.4% 증가했고, 1년 중 가장 채용이 활발한 3월에는 전월 대비 무려 39.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포함돼 있는 대분류인 'IT·인터넷'의 증가세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채용 공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IT·인터넷'의 총 채용공고는 상반기 월평균 5% 성장했고, 3월에는 전월 대비 33.1% 증가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중분류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지난 6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업체를 소개하는 게시판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Data Analysis(데이터애널리시스)를 비롯해, ▲Hadoop(하둡) ▲Spark(스파크) ▲자연어처리(NLP) ▲R(알) ▲Python(파이썬) ▲TensorFlow(텐서플로) 등 데이터 처리방식을 다루는 직종의 소분류로 구성돼 있다.

채용공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분류인 '빅데이터'는 월평균 8.8%, '인공지능(AI)'은 월평균 13.4%, '머신러닝'은 월평균 13.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6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류 생성 이후 하반기(7~12월)의 월평균 채용공고 수와 비교해보면 2018년 상반기에 무려 100.7%가 늘어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인재를 구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구직자들도 취업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미래엔

초등생 손글씨 공모전

교육출판전문기업 (주)미래엔은 '제3회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2회까지 총 5000여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수상작 중 3개 작품은 컴퓨터 폰트로 개발돼 초등학교 1~4학년 국어 교과서에 적용되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학생은 국어나 국어활동 교과서에 나오는 글 1편을 골라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9일 한글날 발표된다.

심사기준은 아름다움과 독창성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0명, 입선 50명 총 73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가장 많은 학생이 참가한 최다 학생 참가 학교상 수상 학교에는 미래엔 아이세움에 발행한 논술 명작 시리즈와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각 1권을 제공한다.

우수 수상작들은 컴퓨터 서체로 개발돼 교과서에 실린다. 수상자 어린이 이름을 따 개발되는 서체 3종은 미래엔이 발행하는 2019년도 초등 5,6학년 국어와 국어활동 교과서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지금은 소형 오피스 · 오피스텔이 투자자대세!

실투자금 1억에 4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KTX(2021년)·송도 테마파크(2020년) 교통프리미엄과 4만 임대수요 최대수혜지!

청량산과 서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송도 옥련동 최고의 명품 조망권과 송도테마파크 미래비전을 담은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PARKVIEW**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ChosunMedia 조선일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노려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통상 전용면적 60㎡ 이하를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60㎡ 이상 중형 오피스텔은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내부 설계나 입주인 편의시설이 크게 떨어져 수요자 확보가 쉽지 않다. 월세 수익률도 소형보다 낮다. 예를 들어 전용 23㎡와 27㎡가 있다면 23㎡를 택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격은 27㎡가 조금 더 비싸겠지만 준공 후 임대료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용 60㎡ 이하는 세제 혜택도 있다.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득세가 200만원 넘으면 85% 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18년 05월 15일

옥련동 최고 조망권 확보 분리형 1.5룸/2룸

KTX·수인선 더블역세권 인천의 교통중심

놀이시설 워터파크, 호텔 등 송도테마파크 계획

희소성 높은 소형평면 공실을 걱정 ZERO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2021년) KTX 부산까지 2시간!

- 오피스 96실
- 오피스텔 112실
- 상가 16실

송도의 교통특권과 미래비전을 먼저 누린다!



|  |   |
|--|---|
| <b>7200억원 투입, 송도 테마파크 2020년 개장 예정!</b><br>놀이거구, 워터파크, 리조트 등 멀티 콘텐츠 테마파크 49만㎡ 규모, 2020년 예정, 업계종사자 4만여 임대수요 확보 | <b>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b><br>하루이용객 2~3만 예상되며 인천 상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인 2021년 예정 |
| <b>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단지, 송도 골든하버</b><br>쇼핑,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레저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로 복합화 된 럭셔리 관광휴양단지                        | <b>문화관광시설 중심지</b><br>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가천박물관, 송도 국제신도시 등 연간 30만명 관광객 유입               |
| <b>인천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2019년 예정)</b><br>2016년 착공 2019년 준공예정, 총40만평 규모(항만시설 22만, 지원시설 18만)                         | <b>가깝게 누리는 생활 인프라</b><br>송도 꽃게거리 바로 앞, 반경 2km 이내에 CGV, 롯데마트, 도서관, 해양공원, 은행 등이 위치        |



**인천의 新 교통 중심지! 전국 어디로든 통하는 특급 교통망**  
송도역 역세권 인천발 KTX 송도역에서 경부고속철도까지 연결! 부산까지 2시간대! 2021년 개통예정  
수인선10분거리 수인선 송도역 10분거리, 인천1호선과 국철1호선, 4호선과 이어지는 명품라인  
어디로든 통한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전국,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통망!

합리적인 분양가에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까지!



문의 전화 **1899-6333**

# ‘해운업 재건’ 구원투수 자본금 5兆 한국해양진흥공 출범

황호선 초대공사 사장 선임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따라  
선사 선박확충 지원 집중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에 황호선 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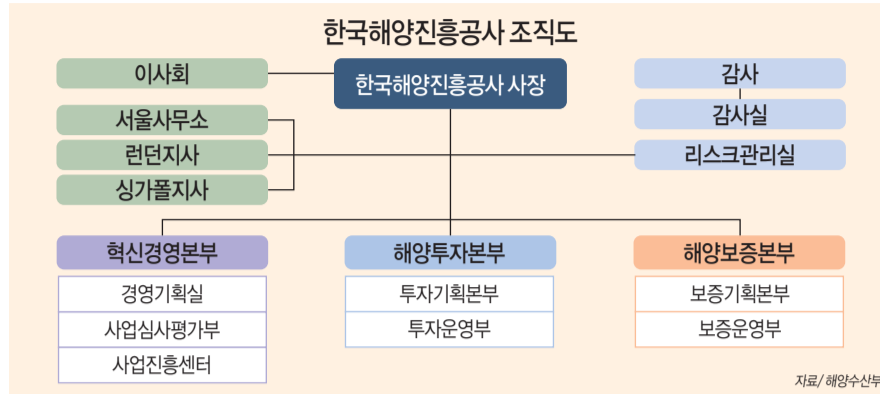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을 책임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달 5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한 지 11개월만이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2월 세계 7위의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하고, 전체 해운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등 해운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운산업 관련 공사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명시하고, 정부내 공사 설립 TF를 구성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 제정을 준비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

지를 바탕으로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6일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해수부는 내부 TF 조직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공사 설립 작업을 준비했으며 2월 5일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율·확정했다.

이후 설립위원회는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사 정관, 내부 규정, 사업계획, 조직·인력 및 임직원 채용 등 실무적인 사항을 의결했고, 이달 2일 황호선 초대 공사 사장 선임과 함께 범상 정해진 설립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며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2018년 예산에 반영한 현금 1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5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공사에 통합되는 (주)한국해양보증보험, (주)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이

약 1조 5500억원으로 평가된다.

조직은 크게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3개로 구성되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된다. 공사의 조직 정원은 101명(현원은 81명)이며, 향후 공사 업무가 확대되면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와 함께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 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

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지난 4월 5일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한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지원계획을 밝혔으며 신설되는 공사와 기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호선 공사 사장은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업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며 “특히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해운산업 특성에 맞춰 기존 금융기관보다 폭넓고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8 타이베이식품박람회’에서 한국관을 둘러보는 현지인들의 모습. /aT

## 대만 “韓 농산물·과일막걸리 좋아요”

aT 타이베이식품박람회 참가  
3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18 타이베이식품박람회(Food Taipei 2018)’에 참가해 신선 농산물과 음료 제품들과 관련된 3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4일 aT에 따르면 박람회에서 aT가 주관한 한국관에는 대만으로 수출되는 주요 신선 농산물인 배, 배추, 양배추 등이 현장에서 수출상담이 이어졌다. 또한, 쌀 막걸리에 카카오넵스와 파인애플을 첨가한 과일 막걸리와 녹차로 만든 그린티믹

스, 오미자청 등 향이 좋은 음료 제품들이 현지 프랜차이즈 바이어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불량 식용유 파동으로 최대의 라면회사가 청산하는 등 고품질 식용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무농약으로 재배한 생들기름이 20만 달러 현장 계약과 예약 주문이 이어지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대만은 중화권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선 농산물을 포함한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소비자의 기호와 트렌드에 맞는 상품의 대만시장 정착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신사업 육성 위해 에너지공 R&D 체계 개편

정부가 신사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열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7719억원)를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공기업은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화 성과추진 및 투명성이 강화된다.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R&D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R&D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공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2019~2021)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도로공사 전국 GS25 편의점서 하이패스단말기 판매

앞으로 전국 GS편의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살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4일 김천 본사에서 GS리테일, (주)에어포인트와 ‘GS25 편의점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터넷을 벗어나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까지 구입처를 확대했다.

판매모델은 (주)에어포인트의 최신형 모델인 ‘지패스(GPASS) 무선하이패스’로 무선 적외선 방식(IR)이다. 선·후불모든 하이패스카드와 호환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특별가 3만9800원이며, 통신사 제휴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판매제품이 더 추가된다.

구매 후에는 제품에 포함된 USB케이블을 이용해 단말기를 자가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따라 하기 쉬운 매뉴얼을 제공해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주 52시간’ 공공기관 90% ‘탄력근무제’

86.7% 출근 시간 자율조정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기업처럼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이 도입했고,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서 채택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도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공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었으며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했다.

공공기관과 부속기관 40곳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101곳(45.9%) 증가한 수준이다.

2013년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중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기관은 220곳(60.9%)이었다.

시차출퇴근형이 213곳(59.0%)으로 가장 많고 근무시간선택형 61곳(16.9%), 집약근무형 19곳(5.3%), 재량근무형 3곳(0.8%) 등이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이다. 지금은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5일  
음력: 5월 22일

수도권 날씨  
**28 ~ 22°C**

운동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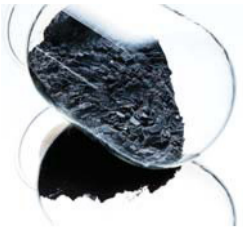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6 | 해질 / 19:5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 공급 체계 확보 05



Life

[유통] 유모차·기저귀 등 친환경 소재 맞춤형 제품 인기 1



# “서울을 서울답게” 박원순의 구상, 더 깊은 변화 이끈다

**민선7기 자문위원회 구성**  
미래·상생·사람·안전·일상 등 6가지 분과 나눠 4년 청사진 그려  
위원장에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각 분야 전문가들 위원으로 위촉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 수립 자문을 위한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촉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위원장, 분과위원장, 참여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선 7기 4년간의 시정 방향과 핵심정책을 담은 청사진 만들기에 본격 착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 ‘더 깊은 변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5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미래·상생·사람·안전·일상·민주 등 6가지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와 서울시는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 시장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비롯, 민선 5·6기 계속사업, 신규사업 등을 아우르는 시정 기본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 윤준병 행정1부시장, 진성준 정무부시장, 박양수 서울시 정무수석, 광현 소통전략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을 비롯, 서울시

실·본부·국장들과 함께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 51명이 위촉식에 참석했다.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분과별 위원장에는 이병현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미래분과위원장)·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도시)·박봉성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사람)·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환경)·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문화)·송문식 함께강동 이사장(민주) 등이 위촉됐다. 6개 분과는 앞으로 민선 7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기획위원

회를 두어 전체 핵심과제를 총괄한다. 박원순 시장은 위촉식에서 “3선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출발했다. 우리의 결정, 하나의 정책으로 많은 시민의 운명이 바뀐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며 “위원들께 별로 드리는 게 없다. 열정페이 강요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이 정책이, 이 결정이 앞으로 1000만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태수 위원장은 “우리 집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오늘 아침 폐지

를 한가득 싣고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분들의 행렬을 볼수 있었다. 아직도 덜컹 눈을 비비며 오늘은 매출이 얼마나 될까 하는 기대하며 컷터문을 여는 분들도 볼수 있었고, 미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학교로 걸음재촉하는 청소년들 볼수 있었다.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던 7년 동안 시민들 고단한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생각해보면 자성의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그동안의 7년이 매우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한다. 제 표현대로라면 민생의 물줄기를 여기저기에 넣었다. 영세민들, 65세 이상 어르신을 찾고,

50대 퇴직자들을 찾아가는 등 여러 일들을 해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10년 완성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물줄기를 잇고 깊고 넓게 확장해 서울 전체에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를 이야기드리고 싶다. 전문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초유의 10년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써 반드시 성과를 내자. 각자 분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연대하고 신뢰하면서, 동지적 우애를 가지면서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자”며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와 더 깊은 변화 위원회는 앞으로 민관 참여형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계획안을 오는 9월 초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분과별로 박 시장의 공약 사항들을 검토해 정책방향과 계획들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될 공약 목록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IoT기술 활용 공유주차제 도입’, ‘대기질 개선대책’, ‘아시아 최고 음악도시 서울’,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카드수수료 경감 서울페이 도입’ 등 60여 가지가 있다. /오전회 기자 valere@metroseoul.co.kr

## 물싸움 하고 종이배 타고... 한강서 물놀이 즐겨볼까 평창 월정사 불전건축 ‘적멸보궁’ 보물 지정

**20일 ‘한강 몽땅 여름축제’ 개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한강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영화를 관람하거나 종이배로 강을 건너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2018 한강 몽땅 여름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는 ‘한여름 강의 예술놀이터’를 주제로 총 80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체 프로그램의 70% 이상(59개)이 무료로 진행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한강물싸움축제’는 8월 4~5일 난지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다. 투명자켓과 수상자전거, 패들보드 등 10종의 물놀이 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는 ‘한강수상놀이터’는 7월 20일~8월 19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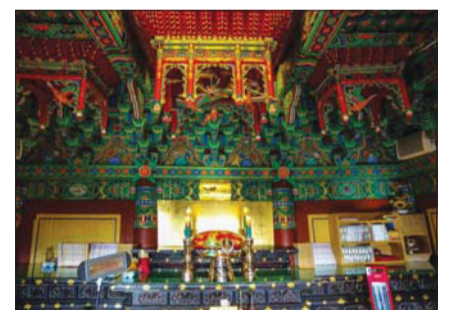
한강 물싸움 축제 모습. /서울시

1만 명의 시민들과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나이트워크 42K’는 7월 28일 여의도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종이배로 한강을 질주하는 ‘한강몽땅 종이배경주대회’는 8월 10~12일 잠실나들목에서 진행된다. 물놀이장에서 튜브를 타고 영화를 관람하는 ‘시네마풍당’은 7월 27일부터 매 주 금요일 난지물놀이장에서 운영된다. 축제를 즐기면서 환경보존을 실천할 수 있는 ‘한강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8월 3~5일 독성 자벌레 잔디밭), 도심 속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캠페인 ‘예술동물원 한강 ZOO’ (8월 11~12일 여의도 안나센터 앞) 등 생애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강몽땅 홈페이지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ik1@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축물 ‘적멸보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지정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 내 불전건축물인 적멸보궁(寂滅寶宮)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적멸보궁(月精寺 寂滅寶宮)’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平昌 五臺山中臺 寂滅寶宮)’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오대산은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 등 문헌기록에 따르면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가져와 봉안한 후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신라 이후 현재까지 법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의 성지인 오대산에서 ‘오대(五臺)’란 중대 진여원,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북대 나한암, 서대 미타암을 뜻한다. 오대산사적에는 이 다섯 건축물이 건립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현재는 중대 사자암 및 상원사,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서대 염불암이 위치해 있다. 오대산 중대에는 진신사리(眞身舍利, 석가모니 사리) 봉안처와 석비가 함께 있다. 적멸보궁 뒤편의 봉분처럼 쌓인 언덕에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고 전해진다.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오대산의 중심인 비로봉과 주변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분지 가운데 중대의 해발고도 1189m에 남동향으로 자리한다. /오전회 기자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정면. /문화재청



적멸보궁 내부사건. /문화재청

## 세곡119안전센터 개소... 골든타임 확보한다

강남구 세곡·자곡·울현동 일대 관할  
서울시는 4일 강남구 세곡동·자곡동·울현동 일대 소방안전서비스를 담당할 ‘세곡119안전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서비스는 수서119안전센터가 담당해왔다. 이번 세곡119안전센터 신설로 관할지

역인 울현동, 자곡동, 세곡동 일대에서는 ‘안전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은 세곡지구가 완성되면서 3만5966명이 신규 유입됐다. 주거 인구는 약 4만5000명이며, 수서SRT 역사와 인접해 하루 유동인구가 4만3000명에 달해 소방서비스 수요가 증가해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등 긴



세곡119안전센터 전경. /서울시

급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소방안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 건강한 집으로 갑니다

더 깨끗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건강이 가득한 우리집에 놀러 오세요

■ 직수관 교체로 깨끗함의 차원이 다른 직수 **퓨리케어 정수기**  
1년마다 직수관 무상 교체, 2단계 매일매일 셀프 살균케어로 코크 살균  
3개월마다 방문 살균케어  
\* 온수 직수관(저체 살균), 원수 입수관 제외, 모델별 상이할 수 있음

■ 빨래, 날지 말고 트롬 건조하세요 **트롬 건조기**  
살균코스로 유해세균 제거, 먼지 걱정 없는 위생건조  
전기로 걱정 없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 공기청정기의 새로운 움직임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360°로 흡입해 초미세먼지 제거, 클린부스터로 더 멀리까지 강력하게  
각종 유해물질을 6단계 토탈케어로 확실하게

■ 매일 빨 수 없는 옷, 매일 씻어 입자 **트롬 스타일러**  
트루스팀으로 강력한 살균, 냄새입자 제거로 확실한 탈취  
의류건조/실내제습/바지칼주름까지

\* 당사 또는 외부기관의 시험결과로 일부 모델과 사용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65일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 LG전자 **건강관리** 가전

LG PuriCare<sup>™</sup> | LG TROMM 건조기 | LG PuriCare<sup>™</sup> | LG TROMM styler<sup>™</sup>  
퓨리케어 정수기 | 360° 공기청정기

LG 베스트샵에서 렌탈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대상 제품: 스타일러 / 건조기 / 전기레인지 / 공기청정기 / 정수기 / 안다의자 \* 일부 모델 제외